

朱子の「南嶽唱酬詩」에 대한

조선 문인의 수용과 변주

— 李荇과 趙琮鎭의 和韻詩를 중심으로 —

이 훈*

<目次>

- | | |
|-------------------------|----------------------|
| I. 서론 | 2. 寓意와 言志에 의한 주제의 변주 |
| II. 작품별 창작 배경과 형식 비교 | 3. 古詩의 작법에 대한 수용과 변주 |
| III. 수용과 변주의 양상 분석 | IV. 결론 |
| 1. 首句 韻字의 활용과 結句 韻字의 변주 | |

<국문 초록>

본고는 주자의 「南嶽唱酬詩」 50수에 대한 이행과 조종진의 和韻詩를 중심으로 문학적 수용과 변주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체시의 押韻 방면에 있어 주자는 首句에 通韻으로 압운한 경우가 있다. 이행과 조종진은 이를 수용하여 수구의 韻字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原詩에 사용된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주로 시상을 끝맺는 부분인 마지막 구의 운자를 동일 韻目的 다른 글자로 전환하여 변주하였다. 이것은 운자의 변주를 통해 주제의식의 차별화를 구현한 것이다.

주제의식의 차별화는 주자의 原韻을 그대로 사용한 시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행과 조종진은 각자의 ‘寓意’와 ‘言志’로 주자의 原詩에 담긴 주제의식을 수용하고 변주하면서, 각자의 뜻을 경물에 기탁하거나 전고를 차용·변용하고 의론을 개진하며 진솔하게 정감을 발현하여 주제를 부각시켰다.

* 강원대학교 강사 / lh8329@hanmail.net

고시의 경우에 있어서 이행과 조종진은 주자의 原詩에서 구사된 산문 어법과 重字 및 連環句를 수용하고 변주하면서 각자의 개성과 주제의식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삼자가 공유하였던 山行과 作詩에 대해 ‘山’자와 ‘詩’자로 連環句를 구사한 조종진의 작품은 뛰어난 詩才와 함께 문학적 가치를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이행과 조종진은 주자의 原詩가 지닌 운율과 격식 및 내용을 수용하고 변주하여 단순한 형식의 답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학성으로 내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南嶽唱酬詩, 和韻詩, 寓意, 言志, 수용, 변주

I. 서론

중국의 산수유람시로서 문학적 진범이 된 작품은 두보의 「北征」, 한유의 「南山詩」, 주자의 「南嶽唱酬詩」가 대표적이다. 이들 작품은 조선조에 들어와 각 시문집의 간행과 유통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수용되었고, 學詩의 과정과 유람의 체험을 형상화하는 과정 및 문학적 지향을 구현하는 과정 등에서 和韻詩¹⁾라는 형태로 다채롭게 변주되기도 하였다. 이에 두보와 한유 및 주자의 시에 대한 학계의 관심 속에서 상기한 세 작품의 비교문학적 연구와 문헌학적 연구가 대두되었는데, 근래에는 이들 작품을 수용한 조선시대 한시에 대한 연구로 그 범

1) 화운시는 原詩의 韻字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次韻과 依韻 및 用韻으로 구분된다. 次韻은 원시의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순서까지 지키는 것이고, 依韻은 다른 운자를 사용하되 같은 韻目에 속한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며, 用韻은 원시의 운자를 사용하되 순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다.(徐師曾 著, 羅根澤 校點, 『文體明辨序說』,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p.109, “按和韻詩有三體, 一曰依韻, 謂同在一韻中而不必用其字也. 二曰次韻, 謂和其原韻而先後次第皆因之也. 三曰用韻, 謂用其韻而先後不必次也.” 참조) 이에 입각하여 본고는 차운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和韻詩’라는 용어를, 차운·의운·용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和韻’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두보의 「북정」과 한유의 「남산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 조선시대 문인들이 각 작품을 모의하거나 和韻한 시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용 과정과 양상 및 문학적 특질을 구명하는 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²⁾

주자의 「남악창수시」의 경우에는 『南嶽唱酬集』이 조선 문인에게 끼친 문학적 영향의 구명과 문헌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³⁾를 토대로, 주자의 「남악창수시」를 화운한 李荇의 『和朱文公南嶽唱酬集』에 나타난 和韻詩論의 연구⁴⁾와 주자의 「남악창수시」가 지닌 성격을 고찰한 연구⁵⁾로 이어져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비교문학적인 측면에서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대한 조선시대 문인의 화운시가 지닌 수용 양상을 밝힌 연구는 단편적으로 언급한 경우⁶⁾를 제외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는 상술한 선행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화운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본다.

- 2) 이국진, 「두보시 「北征」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일고찰」, 『동양한문학 연구』33, 동양한문학회, 2011 및 「조선시대 「南山詩」 차운시의 양상과 문학적 특징」, 『어문논집』70, 민족어문학회, 2014.
- 3)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18, 한국한문학회, 1995; 심경호, 「퇴계의 산수유기」, 『퇴계학연구』10,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6.
- 4) 이의강, 「이행의 화운시집 『和朱文公南嶽唱酬集』 연구 - 『남악창수집』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겸하여」,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5) 김홍영, 「주자의 남악유산시와 퇴계학과의 영향」, 『퇴계학논집』2,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6) 이종목은 『해동강서시과연구』(태학사, 1995)에서 이행의 시세계를 구명하면서 『화주문공남악창수집』에 수록된 시의 일부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필자는 「東海 趙琮鎮의 시문학 연구 - 기행시문집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에서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에 화운한 조종진의 시를 소개하고 그 일부를 비교분석하여 양자 간에 ‘寓意’와 ‘言志’가 창작 의도의 주된 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고는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논지를 확장한 것이다.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쫓겨 상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오류를 범한 부분도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오류를 수정하고 논지를 확장하여, 주자와 이행 및 조종진의 시를 상호 비교분석하면서 문학적 수용과 변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까지 진전시키고자 한다.

화운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南宋 때의 비평가인 嚴羽가 “화운은 시인과 시를 가장 해치는 것이다. 古人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차운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풍습은 元稹白居易皮日休陸龜蒙으로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本朝의 諸賢이 비로소 이것을 가지고 시의 공교로움을 다 투었으니, 마침내 89차례나 왕복하면서 화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⁷⁾라고 비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엄우의 비판은 동일한 시공간에서 주고받는 화운시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지, 시적 전범에 대한 추송과 계승의 목적으로 시공간을 달리하여 창작되는 화운시까지 비판한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범으로 인식된 특정작품에 대한 화운시는 작품을 매개로 하여 原詩 작가와 화운시 작가 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립된 정신적·내면적 교류의 산물이다.⁸⁾ 따라서 동일한 시공간에서 일상적인 교류의 수단이나 詩才의 과시로 창작되는 화운시와는 별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식의 답습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시적 전범에 대한 화운시도 시재의 과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작가의 개성과 주제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주자의 「남악창수시」와 이에 대한 조선시대 문인의 화운시를 상호 비교분석하면서 수용과 변주의 구체적인 특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논의의 집중을 위해 조선 문인의 작품 중에서 주자의 「남악창수시」 50수 전체를 가장 먼저 화운한 이행의 작품과 다시 이행의 작품을 화운한 趙琮鎭의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자가 南嶽인 衡山을 유람하며 지은 시에 서울의 남산에 거주했던 이행이 시공간을 넘어 화운하였고, 다시 시간을 넘어 남산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조종진이 이행의 시에 화운하였다는 역사적 연속

7) 嚴羽, 『滄浪詩話』, 「詩評」, “和韻最害人詩. 古人酬唱不次韻, 此風始盛於元白皮陸. 本朝諸賢, 乃以此而鬪工, 遂至往復有八九和者.”(嚴羽 著, 郭紹虞 校釋, 『滄浪詩話校釋』,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5, p.193) 곽소우는 校釋에서 “滄浪此言, 後世論詩者多宗之.”라고 하였다.

8) 金敬東, 「白居易와 高麗文人の 唱和詩 研究 - 唱和의 諸樣相과 意味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29, 한국중문학회, 2004, p.25 참조.

성을 고려한 것이다. 삼자의 작품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는 우선 작품별 창작 배경과 형식을 비교한 후, 押韻과 語法을 포함한 작법상의 측면과 주제의식이 구현된 내용상의 측면을 아울러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화운시가 작가 고유의 개성과 문학성을 내재하고 있음도 밝히고자 한다.

II. 작품별 창작 배경과 형식 비교

조선시대 문인에게 있어서 『남악창수집』은 臥遊의 자료와 유람의 지침서로 활용될 만큼 일반화 되었고, 산수유기를 창작할 때 『남악창수집』의 문학적 성취를 적극 수용하기도 하였다.⁹⁾ 『남악창수집』은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학적 검토¹⁰⁾와 조선 문인에게 끼친 영향¹¹⁾ 등의 측면이 고구

9) 이의강, 앞의 논문, p.107 참조. 특히 『남악창수집』은 주세붕을 비롯한 영남사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시기를 거칠수록 더 심화되어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18, 한국한문학회, 1995 참조.

10) 심경호와 이의강의 논문을 바탕으로 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南嶽唱酬集』은 1167년 11월에 7일 동안 朱熹(1130~1200)가 벗인 南軒 張栻(1133~1180) 및 제자인 林用中(字 擇之)과 함께 남악인 衡山을 유람하면서 唱酬한 시와 서발문을 후대 사람이 모아 묶은 것이다. 당시에 창수시는 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했는데, 明代에 이르러 鄧淮가 주자와 장식 두 사람의 문집에 수록된 남악창수시를 집록하여, 권두와 권말에 각각 장식의 「南嶽唱酬序」와 주자의 「南嶽遊山後記」를 수록하고, 자신의 「南嶽唱酬集後敘」를 덧붙여 1500년에 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鄧淮의 輯本 『남악창수집』에는 주자의 시 40題 50首와 장식의 시 62題 63首가 집록되었는데, 주자의 시는 『朱子大全』 권5에 수록된 편차를 그대로 따르면서 채록된 것이다.(『주자대전』 권5에 수록된 주자의 남악창수시 제1題인 「七日發嶽麓 道中尋梅不獲 至十日遇雪 作此」 끝에 “自此後係南嶽唱酬”라고 병기되어 있으며, 제49題인 「二詩奉酬敬夫贈言 并以爲別」(2수) 다음에 수록된 「讀林擇之二詩有感」이라는 시 끝에 “自此後係東歸亂藁”라고 병기되어 있다. - 필자) 『남악창수집』은 등회의 輯本 이외에도 清代에 편찬된 四庫全書本이 있는데, 조선에 유입된 『남악창수집』은 명대에 등회가 집록한 판본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복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호승희는 앞의 논문에서 金宗直의 「遊頭流錄」(1472년 作)이 장식의 「남악창수집 서」와 서술상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周世鵬의 「遊清涼山錄」(1544년 作)이 『남악

되었기에 관련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고, 본고에서는 이행과 조종진의 작품이 창작된 배경에 집중하기로 한다.

容齋 李荇(1478~1534)은 평생지기인 金楊震(1467~1535: 자 伯起, 호 虛白堂)으로부터 『남악창수집』을 건네받고 읽은 후, 1531년 음력 3월에 『和朱文公南岳唱酬集』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이행이 주자 등의 작품에 배어있는 風流의 여운에 깊이 감동되어, 朴聞(1479~1504) 및 南袞(1471~1527)과 함께 서울 남산의 靑鶴洞에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던 모임을 추억하며 ‘寓意’와 ‘言志’의 목적으로 7일간의 공력을 기울여 주자의 시 50수에 화운한 것이다.¹²⁾ 따라서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은 시공간을 초월한 주자와 이행 간의 문학적 교류의 결과물이다. 특히 이행은 주자의 原詩에 사용된 압운자를 구사함에 있어 순서까지 그대로 따르는 次韻의 방식을 구사했음에도, 자신의 詩題에 ‘用韻’과 ‘次韻’으로 구분하여 題名을 붙였다. 즉 이행은 주자의 原題와 상관없는 詩題인 경우에는 ‘用韻’으로, 주자의 原題를 그대로 사용한 詩題인 경우에는 ‘次韻’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것이 그가 작품군의 명칭에 ‘和’자를 붙인 이유이다.¹³⁾

여러 시선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행의 작품 중에서 1/5을 차지할 정도로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의 시는 이행 시의 정체가 발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¹⁴⁾ 이러한 평가는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이 지닌 문학성에서 기인하겠지만, 이 작품집이 이행의 인생 말기에 지은 것이자 절

창수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김홍영은 앞의 논문에서 주자의 남악유산과 유산시가 퇴계학파의 문인 학자들에게 유산의 故事와 시문의 典故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을 소개하였다.

- 12) 李荇, 『容齋集』 권8, 『和朱文公南岳唱酬集』, 「謝金伯起以南岳唱酬集見贈 用奉酬敬夫韻」(2首)의 끝에 并記된 글, “豐山金伯起, 以朱晦庵張南軒南岳唱酬集見贈, 某奉讀再三. 夫兩先生道德之蘊奧, 文章之精粹, 其傳於世者, 如日月之麗于天, 雖愚夫愚婦, 皆知所尊信, 而至於風流餘韻, 尤有感人深者. 嗚呼! 某今已衰病, 湖海之遊何可得再. 追念靑鶴洞文酒之會, 邈若異世, 觸物與感, 情所必至. 謹次晦庵先生詩韻, 以寓意, 摠五十首. 元題之不相涉者, 則但用其韻而已. 先生衡岳之行, 凡七日, 故今亦以七日爲限. 非敢僭擬於先賢, 亦各言其志也. 觀者幸恕之. 嘉靖辛卯暮春有日, 靑鶴道人書.”

13) 이에 대해서는 이의강의 논문에서 자세히 분석해 놓아 참조가 된다.

14) 이종묵, 『해동강서시파연구』, 태학사, 1995, p.237 참조.

필사로 간주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이행이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을 완성한 시기의 전후 행력을 周世鵬이 찬한 「行狀」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행은 1530년 겨울에 좌의정이 되었으나, 1531년 10월에 金安老의 일을 논하다가 오히려 김안로의 탄핵을 받아 判中樞府事로 강등되었고, 1532년 3월에 평안도 咸從으로 유배되어 1534년 10월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¹⁵⁾ 이를 통해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은 그가 좌의정이 되었다가 김안로의 탄핵으로 좌천되는 그 사이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력에 의해서인지 湖陰 鄭士龍(1491~1570)은 「和南嶽唱酬集跋」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공의 시문은 모두 손수 모아서 기록한 것인데, 이 시집은 그 중 일부로서 바로 비방을 피하여 근심하던 중에 번민을 달래면서 지은 것들이다. 오래지 않아 선생은 權幸에게 배척되어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으니, 이 시집은 거의 절필시인 것이다.¹⁶⁾

대표작이자 절필시인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은 1554년에 開城 留守 韓岬가 정사룡의 발문을 붙여 개성에서 초간하였는데,¹⁷⁾ 임란왜란으로 板木이 유실되자 증손인 李安訥(1571~1637)이 1612년에 錦山郡守로 있을 때 남아 있던 1帙을 찾아 이를 저본으로 하여 중간하였으며,¹⁸⁾ 이후 1713년에 다시 금산에서 삼간되었다.¹⁹⁾

15) 周世鵬 撰, 「行狀」(『容齋集』) 참조. 이 「행장」은 주세봉의 『武陵雜稿』 권8에 「容齋李相公行狀」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6) 鄭士龍 撰, 「和南嶽唱酬集跋」(『容齋集』), “公之詩文, 皆手自哀錄, 此集即其一斑, 乃避謗憂虞中紓悶之作也. 未幾, 公爲權倖排根, 拘歿謫籍, 此殆其絕筆也.”

17) 정사룡, 위의 글, “同寅韓公士仰, 夙被公知最深, 分司開城, 將此集, 捐俸入梓, 以廣其傳. 索余題卷後, 其用意, 豈不深可敬哉.” 참조.

18) 李安訥, 『東岳集』 권26, 「重刊容齋先生和朱文公南嶽唱酬集跋(在錦溪時)」 참조. 이 글에서 이안눌도 “況斯集一編, 又是公喜易時絕筆.”라고 하여 이행의 『和朱文公南嶽唱酬集』을 절필시로 간주하였다.

19) 한국고전번역원, 『용재집』 해제 참조.

이렇게 3차례에 걸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던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은 『남악창수집』과 함께 문인들에게 애독되었을 것인데, 여러 문인들의 산수유기에 『남악창수집』이 언급되거나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화운하여 시를 짓는 경우가 이행의 사후 이후에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산수유기의 경우에 『남악창수집』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周世鵬(1495~1554)의 「遊清涼山錄」은 1544년에 지어진 것이고,²⁰⁾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화운한 시 중에서도 주세붕이 白雲洞書院에 관한 기록을 엮은 『竹溪志』(1544년 편찬)에 수록된 「奉酬敬夫」²¹⁾가 이행의 작품을 제외하면 가장 앞서는 것이다. 물론 주세붕이 별도의 경로를 통해 『남악창수집』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가 이행으로부터 가장 깊은 知遇를 입은 관계에서 이행의 行狀을 지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행을 통해 『남악창수집』을 접했거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²²⁾ 따라서 이행이 『화주문공남악창수집』 제49수에서 “平生金伯起, 訪我山路深. 贈我南岳錄, 着眼我方初.[평생의 지기인 김백기가, 깊은 산길로 나를 방문했다네. 나에게 남악록을 주었으니, 눈여겨 본 것은 내가 비로소 처음이네.]”라고 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행과 주세붕 이후에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화운한 경우는 여러 문인의 시문집에서 산견된다.²³⁾ 그러나 이행처럼 주자의 시 50수 전체에

-
- 20) 周世鵬, 『武陵雜稿』 권7, 「遊清涼山錄」, “嘉靖甲辰[1544년]四月初九日丁丑, 將遊清涼山.” 참조.
- 21) 주세붕, 『竹溪志』 雜錄五, 「奉酬敬夫」, “昔我抱冰炭, 從君識乾坤. 始知太極蘊, 要眇難名論. 謂有寧有跡, 謂無復何存. 惟應酬酢處, 特達見本根. 萬化自此流, 千聖同茲源. 曠然遠莫禦, 惕若初不煩. 云何學力微, 未勝物欲昏. 涓涓始欲達, 已被黃流吞. 豈知一寸膠, 救此千丈渾. 勉哉共無斃, 此語期相敦.” 이 시는 주자의 「남악창수시」 50수 중에서 마지막 시를 차운한 것이다.
- 22) 주세붕이 찬한 이행의 「行狀」(『容齋集』)에 “平生著述未嘗置草, 其得手稿者, 唯謫居南遷海島三錄南遊錄和南岳唱酬集而已. … 公之子元祿錄公事跡, 請述行狀. 世鵬於公, 辱知最深, 不敢以不文辭, 參記所聞見如右, 謹狀.”이라고 하였다.
- 23)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추출한 것을 몇 개만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權好文(1532~1587)의 『松巖集』 권3에 「敬次朱文公南嶽唱酬韻」(2수)과 『松巖續集』 권1에 「次南嶽唱酬 示金仲景南景祥」(1수)과 『松巖續集』 권3에 「敬

대해 화운한 경우는 드문데, 『한국문집총간』을 확인한 결과 李光庭(1674~1756)이 주자의 시 49제 50수 중 48제에 대해 49수로 화운한 시가 보인다.²⁴⁾ 이외에 간행되지 않은 개인시문집의 경우에는 東海 趙琮鎭(1767~1845)의 「謹次容齋和朱子南嶽唱酬韻」을 필자가 학계에 소개한 바 있는데,²⁵⁾ 이행의 작품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수로 창작된 경우이다. 조종진의 작품은 특이하게도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 50수 전체에 대해 화운한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이행의 시에 화운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주자와 이행의 시 전부를 학습한 이후에 지은 것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조종진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의 하나인 豐壤趙氏 淮陽公派 가문에서 태어나, 左承旨에 오른 것으로 仕宦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는 관료로서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문인으로서 4,000수가 넘는 한시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문집인 『東海公遺稿』 11책을 남겼다. 1805년 39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그는 藝文館 檢閱로 임명되는 1808년 6월 전까지 승정원의 임시관직인 假注書에 차출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가주서로 차출될 때마다 그는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懸病하여 나아가

次朱文公南嶽唱酬韻(2수)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5수의 화운시가 실려 있다. 그리고 宋柟壽(1537~1626)의 『松潭集』 권1에 「草堂 用板屋韻(和朱文公南嶽唱酬韻)」과 「和朱文公南嶽唱酬韻(十三首)」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14수의 화운시가 실려 있다. 또한 蔡之洪(1683~1741)은 1740년에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화운하여 「出山時 謹次朱先生南嶽別張敬夫韻 示二友」와 「又用南嶽詩唱酬」라는 제목으로 2수를 남겼다. 『鳳巖集』 권2) 이외에도 『남악창수집』에 붙인 跋文으로 李徽逸(1619~1672)의 「書南嶽唱酬後」(『存齋集』 권4), 李喜朝(1655~1724)의 「書朱張二先生南嶽唱酬錄後」(『芝村集』 권20) 등이 있다. 『남악창수집』에 수록된 시의 개별 시체로 검색한다면 더 많은 수의 화운시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4) 李光庭, 『訥隱集』 권2, 「敬次南嶽唱酬詩韻四十九首(并序)」(1730년 作). 이광정(본관 원주, 자 天祥, 호 訥隱)은 葛庵 李玄逸과 密菴 李栽를 스승으로 한 南人의 대표적인 문장가로서, 대과를 포기한 채 출생지인 현 봉화군에서 저술과 후진양성에 주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광정의 화운시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자의 시 제49수와 제50수에 대한 화운시가 빠져 있다.
- 25) 이훈, 「東海 趙琮鎭의 시문학 연구 - 기행시문집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82-91 참조.

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1807년에 지은 「蒙點假注書 懸病 拈筵字」란 시에서 “병든 몸을 죽으로 조섭하고 있고, 하급관리의 朝服인 靑衫을 살 돈도 없으며, 벼슬에 나아갈 마음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²⁶⁾ 그가 남산을 자주 올라갔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하며, 1808년 윤5월에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에 화운한 직접적인 동기 역시 자신의 뜻을 기탁하고자 한 것이다.

조종진의 「謹次容齋和朱子南岳唱酬韻」은 그의 詩題에서 그 일부분을 추출하여 필자가 임의로 붙인 題名이다.²⁷⁾ 이 詩題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서문을 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창작 배경과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무진[1808]년 윤5월 3일 容齋의 『和朱文公南岳唱酬集』에 삼가 차운하였는데, 詩題는 容齋의 詩題를 사용하였다. 나의 거처는 靑鶴洞과 이웃이 된다. “형산과 우리나라는, 거리만 부질없이 멀네.”라는 구절의 의미를 견준다면 지적일 뿐만은 아니니, 하물며 아침저녁으로 남산과 조우하며 즐겁게 노닐에 있으리요.»²⁸⁾

조종진은 1806년 즈음부터 낙선방의 藝洞에 거주하였다.²⁹⁾ 藝洞은 이행이 살았던 남산의 靑鶴洞[현 중구 예장동]³⁰⁾과 바로 이웃한다. 따라서

-
- 26) 조종진, 『東海公遺稿』 책1, 「蒙點假注書 懸病 拈筵字」의 경련과 미련, “玄粥自調還一病, 靑衫欲索欠千錢. 此身無計趨金闕, 曉月蒼涼坐惕然.”
- 27) 조종진의 「謹次容齋和朱子南岳唱酬韻」은 그의 시문집인 『東海公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필사본, 11책)』에 시체별로 분책되어 실려 있다. 칠언시는 책2에, 오언시는 책3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조종진의 『東海公遺稿』는 『유고』로 약칭함.
- 28) 조종진, 『유고』 책2, 「戊辰閏五月初三日戊辰, 謹次容齋和朱子南岳唱酬韻, 而題用容齋詩. 吾居與靑鶴洞爲隣. 以“南岳與東海, 道里空漫漫”句意較之, 不啻咫尺, 況朝暮遇南嶽勝遊乎.」
- 29) 조종진, 『유고』 책2, 「丙寅[1806]三月十二日(庚申)朝 自藝洞發行之金剛」 참조. 조종진은 낙선방 墨洞의 聽流堂에서 낙선방의 藝洞(현 서울의 중구 인현동2가·예관동·충무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1806년 3월에 금강산 유람을 예동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 1805년 10월에 문과에 급제한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조종진이 「謹次容齋和朱子南岳唱酬韻」을 창작한 것은 이행과 남산을 공유하는 공간적 배경에서 비롯되었고, 그 궁극적인 이유는 詩意를 견준다는 ‘較意’에 있었다. 詩題에서 인용한 시구는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에 수록된 제49수의 11~12句이다. 중국의 형산과 서울의 남산이라는 거리상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을 창작하였으니, 청학동과 지척인 예동에서 자주 남산을 올랐던 그로서는 이행의 작품에 차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지이다. 따라서 그는 이행의 原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압운 또한 순서까지 그대로 따르는 次韻의 방식을 택했다. 그가 작품군의 명칭에 ‘次’자를 붙인 이유이다.

한편 아쉬운 점은, 이행 시의 제3수인 「靑鶴洞」에 대한 조종진의 화운시가 그의 시문집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逸失되었거나 시문집에 시체별로 分冊하여 수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³¹⁾ 그 이유는 별도로 지은 「半日」이란 시에서 스스로가 이행의 작품에 대한 화운시 50수를 지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和容齋和朱子南岳詩五十首韻 更賦一絶 題曰半日[주자의 남악시 50수에 화운한 용재의 시에 화운하였다. 다시 절구 1수를 지어 ‘반일’이라 題名한다.]」(『유고』 책2)

半日吐詩五十篇	한나절 동안 오십 수의 시를 토해냈는데
多慚十日盡工專	열흘 공부에 전념하여 마치니 너무 부끄럽네.
起看華嶽噓朝氣	일어나 보니 북한산에서 아침 기운 불어오고
萬朵彤雲爛上天	만 송이 붉은 구름이 촛대 위 하늘에 떠있네.

-
- 30) 이행은 靑鶴道人이라는 호도 썼는데, 그가 살았던 靑鶴洞은 현재의 남산 제1호 터널 부근으로 근처에 擘翠軒 朴闇(1479~1504)이 살아서 자주 시회를 열었던 곳이라고 한다.(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3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1998, p.113 참조)
- 31) 조종진의 『유고』에 「靑鶴洞」이란 詩題로 七絶 1수(책2)와 七律 2수(책1)가 있긴 하다. 그러나 모두 1795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五言古詩인 이행의 시와 詩體가 다르며, 압운자도 이행의 것과 다르다. 따라서 이행의 시에 대한 화운시는 아니다.

기구에서 동해는 이행의 작품에 대한 화운시 50수를 반일 만에 지었다고 하였고, 승구에서는 열흘 동안 공부에 전념한 후 끝마친 것이라 하였다. 동해가 부끄럽다고 한 것은 이행의 창작 소요일이 주자가 형산을 유람하였던 기일에 맞춘 7일이었기 때문이다. 동해가 作詩에 소요한 시간에 비해 作詩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동해가 이행의 작품뿐만 아니라 『남악창수집』에 대한 공부까지 곁꿨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³²⁾

본고에서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대한 화운시 중에서 이행 이외에 특히 조종진의 작품을 주목하는 이유는 양자의 작품이 서울의 남산이라는 장소를 공유하여 지어졌다는 배경에서 기인한다. 즉 주자가 중국의 남악인 형산을 유람하며 지은 시에 남산에 거주한 이행이 시공간을 넘어 화운하였고, 다시 시간을 넘어 남산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조종진이 이행의 시에 화운한 것이다. 따라서 삼자의 작품은 시공간을 초월한 문학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다.

상술한 작품별 창작 배경에 따른 삼자의 시 형식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에 제시한다. 도표를 통해 주자의 「남악창수시」 50수에 絶句와 律詩 및 古詩의 형식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체별 작품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詩體	五言古詩	五言絶句	七言絶句	五言律詩	계
작품수	7	1	31	11	50

주자의 「남악창수시」가 본래 수량에서 약 2/3가 산삭된 나머지 49題 50首의 작품만 『晦庵集』 권5에 수록되었다는³³⁾ 점을 감안하면, 시체별

32) 조종진은 이행의 시에 화운하는 것을 주자의 시에 화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유고』 책3, 「廣興倉江後遊詩」의 첫 번째 서문, “不佞於昔年一日, 次朱子遊南嶽七日五十詩.”)

작품수의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고시와 근체시의 형식을 모두 구사하고 있다는 특징에 주목한다면 각 詩體를 두루 섭렵하는 시적 재능이 없어서는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대한 문학적 계승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행은 주자의 시에 대해 화운하는 것이 詩才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감히 참람하게 선현에 비기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뜻을 기탁하였다.”라거나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여 화운시를 창작하는 의도에 선을 그었다.³⁴⁾ 조종진 또한 10일간 전념한 공부를 통해 이러한 이행의 作詩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며, 아울러 자신만의 개성과 주제의식을 시 속에 담았을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조종진은 공교하게도 「謹次容齋和朱子南岳唱酬韻」을 지은 직후인 1808년 6월 檢閱에 제수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행의 『화주문공남악창수집』이 절필시의 성격을 지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 이로 인해 양자의 작품은 주제의식에 있어 편차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Ⅲ. 수용과 변주의 양상 분석

1. 首句 韻字의 활용과 結句 韻字의 변주

근체시에서 首句에 압운한 것을 ‘首句用韻體’라 하고 수구에 압운하지 않은 것을 ‘首句不用韻體’라고 하는데, 五言詩는 수구불용운체가 政

33) 이의강, 앞의 논문, p.114 참조.

34) 李荇, 『容齋集』 권8, 『和朱文公南岳唱酬集』, 「謝金伯起以南岳唱酬集見贈 用奉酬敬夫韻」(2首)의 끝에 并記된 글, “(상략) 謹次晦庵先生詩韻, 以寓意, 摠五十首. 元題之不相涉者, 則但用其韻而已. 先生衡岳之行, 凡七日, 故今亦以七日爲限. 非敢僭擬於先賢, 亦各言其志也. 觀者幸恕之. 嘉靖辛卯暮春有日, 青鶴道人書.”

격이고 七言詩는 수구용운체가 政格이다.³⁵⁾ 요컨대 근체시에서는 수구에 반드시 압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原詩에 쓰인 운자를 사용해야 하는 화운시의 속성 상 原詩를 따라 수구에 압운하기도 하고, 수구에 압운하지 않은 原詩와는 다르게 화운시에서 수구에 압운하는 경우도 있다.³⁶⁾ 주자의 「남악창수시」와 이를 화운한 이행과 조종진의 작품에서는 전자의 경우만 발견되는데, 부록에 제시한 도표에서 관련 부분만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題 次	주자의 「남악창수시」		이행의 화운시		조종진의 화운시		詩體
	詩題	압운자[운목] <압운방법>/ 合律 여부	詩題	압운자 [운목]	詩題	압운자 [운목]	
39	晚霞	峰[冬] 紅, 風[東] <通韻>/合律	次晚霞韻	좌동	次晚霞	좌동	七絕
40	過高臺携信 老詩集 夜讀 上封方丈 次 敬夫韻	言[元] 然, 妍[先] <通韻>/合律	讀唐天使臯 詩板 用讀信 老詩韻	좌동	讀唐天 使臯詩板	좌동	七絕
45	醉下祝融峯 作	風[東] 胸, 峯[冬] <通韻>/合律	上山 用醉下 祝融峯韻	좌동	上山	좌동	七絕

주자의 제39수와 제40수 및 제45수는 모두 시의 형식이 칠언절구이다. 이 시에 구사된 압운 방법을 ‘通韻’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행이 주자의 原詩에서 首句의 마지막 글자를 운자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자의 原詩에서 수구의 마지막 글자는 운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행이 운자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35) 이에 대해서는 김상홍, 『한시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초판 3쇄) 참조.

36) 김경동, 앞의 논문, p.35 참조.

칠언절구는 수구에 압운을 하는 것이 정격이기 때문에 주자의 原詩에서 수구의 마지막 글자를 운자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경우의 압운 방법이 일반적으로 근체시에서 동일 韻目에 속한 글자로 압운을 하는 ‘一韻到底’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자의 제39수 경우에 수구의 운자인 ‘峰’은 上平聲 ‘冬’운목에 속하고, 승구와 절구의 운자인 ‘紅’과 ‘風’은 上平聲 ‘東’운목에 속한다. 따라서 수구의 마지막 글자를 운자로 볼 경우에 이 시의 압운 방법은 音韻이 유사한 異種의 운을 서로 통용하여 쓰는 ‘通韻’으로 봐야 한다.³⁷⁾

통운으로 압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운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시에서 나타나지만, 근체시에서도 통운으로 압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絶句의 수구와 절구에서 발생하는데, 수구에 통운으로 압운한 것을 ‘飛雁入群格’이라 하고 절구에 통운으로 압운한 것을 ‘飛雁出群格’이라 한다.³⁸⁾ 이런 측면에서 주자 자신이 의도하여 수구에 통운으로 압운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平仄의 안배에 있어서 平仄譜 간의 合律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에서 예거한 주자의 세 시는 모두 해당 평측보에 合律한다. 구체적인 合律 양상은 제39수만 아래에 제시한다.

주자, 「晚霞」		칠언절구 仄起式 수구용운체 평측보	비고
原詩	평측 안배		
日落西南第幾峯	××○○××◎	××○○××◎	○: 평 성 ×: 측 성 ◎: 압운자
斷霞千里抹殘紅	×○○××○○◎	○○×××○○◎	
上方傑閣凭欄處	○○××○○×	○○××○○×	
欲盡餘暉怯晚風	××○○××◎	××○○××◎	

37) 상평성 ‘東’·‘冬’·‘江’운목은 서로 통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홍, 앞의 책, p.102 참조.

38) 김상홍, 앞의 책, p.103 참조.

주자의 시는 수구의 제2字인 ‘落’이 仄聲이기 때문에 仄起式이고, 수구의 마지막 글자를 운자로 볼 경우에 수구용운체가 된다. 따라서 ‘칠언절구 측기식 수구용운체’의 평측보와 평측의 안배가 일치해야 合律로 인정되어 근체시로 규정할 수 있다. 도표에서 평측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승구의 제1자와 제3자이다. 근체시의 평측에 있어 매구의 제1-3-5자의 평측은 不論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자의 시는 평측보와 일치하여 근체시의 율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수구에 통운으로 압운한 것은 주자가 의도한 것이고, 이행이 이를 수용하여 그대로 운자로 사용하였으며, 이행의 시를 화운한 조종진도 운자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압운상에 있어 주자의 原詩를 수용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자의 原詩에 사용된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부록에 제시한 도표를 통해 압운의 측면에 있어 삼자의 작품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행과 조종진은 주자 시의 운자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모두 차운의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상호간에 다른 운자를 사용한 것이 발견된다. 이것은 압운 상에 있어 주자의 原詩를 변주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 압운에 제한받지 않는 고시는 제외하고 근체시 중에서 운자의 편차가 발생한 작품만을 선별하여 도표로 제시한 후, 이어서 작품의 실체에 접근하여 운자의 변주가 지닌 의미를 살펴본다.

구분 首次	주자의 「남악창수시」		이행의 화운시		조종진의 화운시		詩體
	詩題	압운자[운목] <압운방법>	詩題	압운자 [운목]	詩題	압운자 [운목]	
6	馬上口占 次 敬夫韻	昏, 村, 尊(=樽)[元] <一韻到底>	次口占韻	昏, 村, 樽	次口占	昏, 村, 尊(=樽)	七絶
22	霜月 次擇之 韻	天, 煙, 嬋[先] <一韻到底>	次霜月韻	좌동	次霜月	天, 煙, 嬋[先]	七絶
35	福嚴寺回望 嶽市	煙, 天[先] <一韻到底>	峯火 用望岳 市韻	煙, 牟[先]	峯火	煙, 牟[先]	七絶
48	和擇之韻	來, 堆, 雷, 回[仄] <一韻到底>	次和擇之韻	來, 堆, 雷, 回[仄]	次和擇之	來, 堆, 雷, 回[仄]	五律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간에 운자가 상이한 경우는 모두 마지막 구에서 발생한다. 시상을 끝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운자를 바꾼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제6수의 ‘尊’과 ‘樽’은 上平聲 ‘元’운목에 속한 것으로서 ‘술동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제22수의 ‘娟’과 ‘妍’은 下平聲 ‘先’운목에 속한 것으로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두 시에서 다른 운자를 구사한 것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삼자의 작품 내에서도 해당 글자들은 같은 뜻으로 구사되었다. 이에 뜻이 다른 운자를 구사한 제35수와 제48수의 작품을 거론하여 의도성의 여부를 분석한다.

주자, 제35수 「福巖寺回望嶽市[복암사에서 악시를 돌아보다]」³⁹⁾
 昨夜相携看霜月 이젯밤에는 서로 이끌고 서리 맞으며 달 보았는데
 今朝誰料起寒煙 오늘 아침엔 찬 안개 피어날 줄 누가 헤아렸으리.
 安知明日千峯頂 어찌 알리오 내일이면 무수한 봉우리 정상에서
 不見人間萬里天 인간세상과 만 리의 하늘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행, 峯火 用望岳市韻⁴⁰⁾
 夜夜平安烽火報 밤마다 평안하다고 봉화가 알리니
 邊城千里絕狼煙 변방 천리에 위급한 봉화 끊어졌네.⁴¹⁾
 極知中外渾無事 나라 안팎이 모두 무사함을 잘 아니
 聖主憂勤廿六年 성상께서 애쓰신 지 이십육 년이로세.

- 39) 주자의 原詩는 주자대전 번역연구단이 번역하여 발행한 『주자대전1』(한국학술정보(주), 2010)에서 인용하였고, 번역 또한 이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필자가 수정하였다.
- 40) 이행의 시는 『容齋集』(한국문집총간 20집)에서 인용하였고,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등재된 번역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필자가 수정하였다.
- 41) ‘狼煙’은 이리의 똥을 태운 연기라는 뜻인데, 그 연기가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고 위로 곧장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 군대에서 경보를 알리는 봉화로 썼다고 한다. 앞으로 논의의 집중을 위해 시어의 풀이는 각주로 처리한다. 아울러 별도의 출전 표기가 없는 시어의 풀이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조종진, 「烽火」(『유고』 책2)

臺燧捷於千里駟 봉수대의 봉화가 천리마보다 빠른데
 平安四履息狼烟 사망이 평안하여 위급한 봉화 그쳤네.
 是知聖主憂勤力 이는 성상께서 애쓰신 덕분임을 아니
 海晏河清抵百年 바다의 평안과 강의 맑음이 백년에 이르리.

주자의 시는 예상치 못한 안개로 인해 형산 인근의 마을과 푸른 하늘을 조망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며 내일의 맑은 기후를 희망하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이행과 조종진의 시는 忠君之情과 憂國愛民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이행은 주자의 原題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詩題에 ‘用~韻’으로 구분하여 제명하였다. ‘烽火’⁴²⁾로 바뀐 시제에 의해 시의 주제의식도 바뀌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原詩의 운자까지도 변주한 것이다.

‘天’과 ‘年’은 둘 다 下平聲 ‘先’운목에 속하기 때문에 운자를 바꾸되 동일 운목에 속한 글자를 사용하는 用韻의 방식을 구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이 시제를 ‘用~韻’으로 제명한 이유에는 시제가 原題와 다르다는 점 이외에도 운자를 사용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자, 제48수 「和擇之韻[택지(임용중)의 시에 화운하다]」

仰止平生舊 평생을 우리러 본지 오래 되었더니
 今年得得來 올해에야 득의양양하게 올 수 있었네.
 舉頭天一握 머리 드니 하늘과는 한 줌 거리인데
 倚杖雪千堆 지팡이에 기대니 눈은 천 길로 쌓였네.

42) ‘烽火’는 서울 남산에 있던 봉수대를 가리킨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 “동쪽의 첫째 것은 楊州 峩巒山과 응하니, 이것은 함경도와 강원도의 봉화요, 둘째 것은 廣州 穿川峴과 응하니, 이것은 경상도의 봉화요, 셋째 것은 毋岳 동쪽 봉우리와 응하니, 이것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陸路 봉화요, 넷째 것은 무악 서쪽 봉우리와 응하니, 이것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海路 봉화요, 다섯째 것은 陽川縣 開花山과 응하니, 이것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해로 봉화이다.” 참조)

講道心如渴 도를 논하는 마음은 갈증과 같았고
 哦詩思湧雷 시 읊으려는 생각은 우레처럼 솟았네.
 出山遺語在 형산을 나가면서 말을 남겨 두었으니
 歸騎莫徘徊 말 타고 돌아가야지 배회하지 말자.

이행, 次和擇之韻

衰疾山中住 노쇠하고 병든 몸으로 산 속에 사니
 衡門斷往來 사립문에는 오고가는 사람 끊어졌네.
 酒杯剛欲制 술잔은 강직하게 억제하고자 하고
 書卷亂成堆 책은 어지러이 무더기를 이루었네.
 飛絮漫天雪 날리는 버들개지는 눈처럼 하늘에 질펀하고
 鳴泉出地雷 우는 샘물은 땅 아래 우레 치는 듯 솟아나네.
 悠然得真趣 유연히 참된 흥취를 얻었으니
 卒歲莫言回 한 해가 다가가도 돌아가자고 말하지 말자.

조종진, 「次和擇之」(『유고』 책3)

山中久無侶 산 속에 오랫동안 벗이 없었더니
 喜似擇之來 기쁘게도 택지가 온 것 같네.
 字說宜知執 자설은 견지한 뜻을 알아야 하나
 禮書難作堆 예서는 무더기를 이루기가 어렵네.
 一窓多見雪 온통 창에는 눈이 많이 보였다가도
 萬戶忽開雷 온 문이 홀연 우렛소리에 열리듯 봄이 오네.
 未忘蒼生在 백성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남았으니
 心腸日九回 애간장은 하루에도 아홉 번 뒤틀리네.

주자의 시는 평생 소망했던 형산을 유람하게 된 기쁨과 유람하면서 도를 강론하며 시를 지었던 흥취를 진솔하게 표출하는 한편, 아쉬움을 떨치고 형산을 떠나 귀로에 오르는 의연함을 보여준다. 이행의 시는 남산에서 노쇠한 몸으로 외롭게 지내는 심정을 토로하고 禁酒에 대한 의지와 독서로 소일하는 일상을 그려내면서, 자연의 변화 속에서 ‘復卦’⁴³⁾

43) 復卦는 坤卦가 위에 있고 震卦가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땅속에서 움직이기

의 이치를 터득하여 몸을 엮매는 세상의 괴로운 일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주자의 原詩에 쓰인 ‘雷’의 의미를 ‘復卦’의 의미로 구체화 시킨 것인데, 이것을 수용한 조종진의 시에서는 주자의 「答袁機仲論啓蒙」라는 시의 구절을 차용하여 경련의 대구에 담아냈다.⁴⁴⁾

주자는 의연히 형산을 떠나지만 이행은 초연하게 남산에 머물고자 하고 조종진은 남산에 머물면서 극심한 심적 고뇌를 겪고 있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정사룡이 「和南岳唱酬集跋」에서 “공의 시문은 모두 손수 모아서 기록하였는데, 이 시집은 그중 일부로서 바로 비방을 피하여 근심하던 중에 번민을 달래면서 지은 것들이다.”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이행은 정계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이행이 주자의 原詩에 쓰인 운자 ‘徊[머물거리다]’를 ‘回[돌아가다]’로 바꾼 것과 연관이 있다. 두 글자는 모두 上平聲 ‘灰’운목에 속한다. 역시 운자를 바꾸되 동일 운목에 속한 글자를 사용하는 用韻의 방식을 구사하였는데, 시제에 ‘次~韻’이라 제명하였다. ‘回’자에는 ‘머물거리다’의 뜻도 있어 ‘徊’자와 통용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回’자를 썼다는 것은 앞의 시에서 ‘天’을 ‘年’으로 바꾼 것처럼 原詩의 운자에서 어느 정도 유연함을 지니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행이 시제를 ‘用~韻’으로 제명한 경우에는 原題와 다른 시제를 썼기 때문일 뿐, 운자를 사용하는 방식과 연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종진은 이행의 ‘回’자를 수용하여 운자로 활용하였는데, 이행과는 다른 의미로 구사하였다. 조종진의 시에서 마지막 구는 『漢書』의 「司馬

시작함을 형상한 것이다. 즉 위에 쌓인 陰의 기운 속에서 한 줄기 陽의 기운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44) 주자의 「答袁機仲論啓蒙[원기중이 역학계몽을 논한 것에 답하여]」라는 시에 “忽然半夜一聲雷, 萬戶千門次第開. 若識無中持有象, 許君親見伏羲來.[홀연히 한 밤중에 크게 우레 치더니, 모든 집의 문들이 차례로 열리네. 만약 무 가운데 유의 형상이 있음을 안다면, 그대가 복희씨를 직접 보았다고 허여하리.]”라고 하였다.(주자대전 번역연구단, 『주자대전2』, 2010, p.463 참조)

遷傳」에 있는 문구를 차용한 것이다.⁴⁵⁾ 대과에 급제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정식관직을 제수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출사에 대한 욕구와 그 욕구를 억누르려는 이중적인 고뇌를 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운자의 변주는 주제의식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것은 또한 이행이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대해 화운하는 목적을 “뜻을 기탁하였다.[寓意]”라거나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이다.[各言其志]”라고 한 것과 연동된다. 요컨대 운자의 변주로 주제의식의 차별화를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의 차별화는 주자의 운자를 그대로 수용한 시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에 대해 절을 달리하여 작품을 예거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2. 寓意와 言志에 의한 주제의 변주⁴⁶⁾

이행은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대한 화운시를 짓는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면서 “觸物與感, 情所必至. 謹次晦庵先生詩韻, 以寓意, 摠五十首.”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觸物與感, 情所必至.”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物과 感에 접촉하면 情이 반드시 이르는 것”으로 풀이하고 ‘物與感’을 ‘감동거리’로 이해하여, 이행의 독창적인 시론이라는 의의를 부여하였다.⁴⁷⁾ 이러한 분석은 일리가 있으니, 이를 다시 부연하면 “남산의 景物을 마주 하면서 주자의 「남악창수시」를 접하니 詩心이 도래하여 주자의 시에 차운하였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45) 司馬遷이 자신의 극심한 심적 고통을 표현하면서 “腸一日而九回[애간장이 하루에도 아홉 번이나 뒤틀린다.]”라고 했다.(『漢書』 권62, 「司馬遷傳」: 한국고전번역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발췌함)

46) 본 절은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에서 논의한 내용(「동해 조종진의 시문학 연구 - 기행시문집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86-91)을 수정·보완하고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47) 이의강, 앞의 논문, pp.116-117 참조.

이행의 화운시론이 한국한시사에서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는 선행연구에서 개진된 바, 본고는 이행이 스스로 주자의 「남악창수시」에 대한 화운시를 지은 목적이 ‘寓意’와 ‘言志’에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미 앞 절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에 따라 律格 면에서 편차가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작품의 내용적인 면으로 접근한다. 寓意와 言志는 곧 작가의 주제의식으로, 이것은 作詩의 구상에서부터 시상의 전개와 전환 및 風格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연계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寓意와 言志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가 본 절의 주된 분석 내용이다.

주자, 제1수 「七日發嶽麓 道中尋梅不獲 至十日遇雪 作此[7일 산기슭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매화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고 10일에 이르러서 눈을 만나 이 시를 짓다.]」

三日山行風繞林	사흘간 산행에 바람이 숲을 감싸고 부는데
天寒歲暮客愁深	날씨 춥고 해 저무니 나그네 시름 깊어지네.
心期已悞梅花笑	마음 속 기약 이미 어긋나 매화가 웃을 텐데
急雪無端更滿襟	갑작스런 눈이 끝없이 옷깃에 다시 가득 차네.

이행, 對竹 用遇雪韻

十年功力一園林	십년의 공력으로 원림 하나 만들었는데
誰識衰翁着意深	노쇠한 늙은이가 붙인 깊은 마음 누가 알리.
白首更無知己在	백발에다 지기 또한 있지 않고 보니
此君相對要開襟	대나무 마주하면서 흥금을 펼쳐야겠네.

조종진, 「對竹」(『유고』 책2)

吾廬那得竹爲林	내 집에다 어찌 대나무 숲을 만드리
咫尺紅塵十丈深	지척에 흥진은 열 길이나 깊은데.
會有清風朝晝發	그래도 아침과 낮으로 맑은 바람 일어나
主人灑落淨眞襟	주인은 상쾌하니 흥금은 청정하고 참되네.

주자의 시는 매화를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한 채, 해 저물고 몰아치는

눈보라에 깊어지는 수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행의 시는 음력 3월에 이루어졌으니, 주자의 原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詩題와 시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으니, 이행은 매화 대신 자신이 가꾼 정원의 대나무로 題名하여 자신의 뜻을 기탁하고[寓意], 노쇠해진 몸에도 주변에 지기가 없는 깊은 수심을 대나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표명한[言志] 것이다.

조종진은 이행의 詩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집 주변의 번잡스런 상황과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대나무 정원을 만들지 못하는 처지를 서술하면서, 남산에서 때때로 불어오는 맑은 바람에 기탁[寓意]하여 상쾌한 정신과 淨眞한 마음으로 자족하려는 뜻을 말한[言志] 것이다. 이행과 조종진의 시는 대나무라는 동일한 소재로 시상이 전개되지만, 각자 처한 상황에 의해 심적 고뇌를 극복하는 매개체를 각각 ‘대나무’와 ‘맑은 바람’으로 설정하는 차이가 발생했다.

주자의 「남악창수시」와 이에 대한 이행과 조종진의 화운시 간에는 반드시 내용과 주제가 상이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자의 시제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주자의 주제의식을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행과 조종진의 작품 사이에서는 약간의 편차 또한 발생한다.

주자, 제7수 「馬上舉韓退之話口占[말 위에서 한퇴지의 일화를 거론하여 즉흥으로 읊다],

昨日風煙接混茫	어제는 바람과 안개가 뒤섞여 아득히 이어지더니
今朝紫翠插青蒼	오늘 아침은 자취빛 산이 푸른 하늘에 꽂혔네.
此心元自通天地	이 마음이 원래 천지와 저절로 통하는 것이니
可笑靈宮枉炷香	사당에서 몸 구부려 향불 피웠던 일 가소롭네.

이행, 「次舉韓退之話韻」

人間萬事本茫茫	인간 만사는 본래 알 수 없는 것이니
莫把陰晴問彼蒼	흐리고 개는 것을 저 하늘에 묻지 말라.
衡岳肯因爐炷應	형악이 어찌 향로 연기 때문에 감응하라
公心自有別般香	공정한 마음엔 본래 별다른 향이 있다네.

조종진, 「次話韻」(『유고』 책2)

人間酒暖意茫茫 인간세상 따뜻한 술은 내 뜻과는 멀고머니
却對千峰競菴蒼 도리어 높은 하늘과 다투는 천봉 마주한다네.
北極紅雲天半漲 북쪽 끝 붉은 구름이 하늘 중간에 넘쳐나니
應從一段御爐香 응당 어전 화로의 향기 한가지만을 따라야지.

주자의 시는 先景後情의 구조로, 寫景과 議論이 융합되어 철리적 성격이 강하다. 그 원인은 시제에서 거론된 ‘한유의 일화’에 있다. 일화는 한유가 衡山을 지나가는데 가을비에 음산한 기운이 잔뜩 끼어 형산의 진면목을 볼 수 없게 되자 성심으로 묵도하니 신명이 감응한 듯 날이 개어 산봉우리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형악묘에서 포와 술을 올리며 참배하였다는 고사를 말한다.⁴⁸⁾ 이러한 한유의 행적에 대해 주자는 천지신명과 인간의 교감은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이기에 굳이 형악묘에 분향할 필요는 없다는 논조로 비판한 것이다.

이행의 시는 주자의 시제를 그대로 사용하여 寫景을 배제한 채 주자와 비슷한 의론[言志]을 개진하고 있는데, 주자의 강한 철학적 이치를 보다 쉽게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욕망으로 하늘에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과 공평무사한 마음 자체는 보통과 다른 향기가 있다는 의론은, 『論語述而』에서 공자가 병환이 위중하여 子路가 신께 기도할 것을 청하자 공자가 “나는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다.[丘之禱久矣]”라고

48) 韓愈의 「謁衡嶽廟 遂宿嶽寺題門樓[형악묘를 참배하고 마침내 형악의 절에 묵으면서 문루에서 짓다]」에 “... 我來正逢秋雨節, 陰氣晦昧無清風. 潛心默禱若有應, 豈非正直能感通. 須臾靜掃群峯出, 仰見突兀撐青空. 紫蓋連承接天柱, 石廩騰擲堆祝融. 森然魄動下馬拜, 松柏一逕趨靈宮. 粉牆丹柱動光彩, 鬼物圖書填青紅. 升階僂僂薦脯酒, 欲以菲薄明其衷. ...[(상략) 내가 오니 마침 가을비 내리는 때를 만나, 음산한 기운 어두컴컴하니 맑은 바람 없네. 마음 가라앉히고 묵묵히 기도하니 감응이 있는 듯, 어찌 정직한 마음이 감통시킨 게 아니겠는가. 잠간 사이에 고요히 씻겨 여러 봉우리 드러나니, 우러러보매 우뚝 솟아 푸른 하늘 떠받치네. 자개봉은 이어져 천주봉에 접해 있고, 석림봉은 높이 던져졌고 축융봉은 쌓여 있네. 숙연히 혼백 움직여 말 내려 절하고, 송백 우거진 길을 걸어 사당으로 가네. 분칠한 담과 붉은 기둥엔 광채가 요동치고, 귀물과 그림엔 푸르고 붉은 색으로 채웠네. 계단 올라가 몸 구부리고 포와 술 올리니, 보잘 것 없는 것으로나마 내 충심 밝히고자 하였네. (하략)]”라고 하였다.

하면서 거절한 것과 맥락이 통한다. 공평무사한 마음이라면 천지신명과 저절로 통하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조종진의 시는 주자와 이행의 작품과는 다른 주제의식으로 의론[言志]을 펼치고 있다. 기구와 승구의 의미는 술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니 술을 올리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 하늘과 높음을 다투는 산을 마주한다는 것이다. 조종진의 시가 지닌 미적 특질은 전구와 결구에 있다. 산을 마주보던 시선이 전구에서 북쪽 끝의 붉은 구름으로 옮겨 갔고, 결구에서는 어전 화로의 향기만 따른다고 하였다. ‘北極’과 ‘紅雲’은 實景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각각 ‘대궐’과 ‘奸臣’을 비유한 것으로, 이백이 「登金陵鳳凰臺」라는 시에서 “總爲浮雲能蔽日，長安不見使人愁[모든 것은 뜬구름이 해를 가린 탓이니, 장안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시름겹게 하네].”라고 한 것을 변용한 것이다. 요컨대 조종진은 주자와 이행의 시를 변주하여 忠君之情으로 주제를 전환한 것이다.

주자, 제11수 「方廣道中半嶺小憩 次敬夫韻[방광사로 가는 도중에 고개 중간에서 잠시 쉬며 경부의 시에 차운하다.]」

不用洪崖遠拍肩 멀리 홍애의 어깨를 칠 필요는 없으니⁴⁹⁾
 相將一笑俯寒煙 서로 한번 웃으며 찬 안개 굽어 보세나.
 向來活計蓬蒿底 그동안 살아온 계책은 쭉대 아래였는데⁵⁰⁾
 浪說江湖極目天 강호에서 하늘 한껏 보았다 함부로 말하네.

이행, 次半嶺小憩韻

山徑何妨屢息肩 산길에서 자주 어깨를 쉬들 무슨 상관이라
 不須高步躡雲煙 꼭 높이 올라 구름과 이내 밟을 필요 없네.

49) ‘洪崖’는 전설상 黃帝의 신하로서 신선이 된 伶倫의 호이다. 그는 洪崖先生이라 불리며, 堯임금 때 이미 나이가 삼천 살이었다 한다. 郭璞의 「游仙詩」에, “左挹浮丘袖, 右拍洪崖肩.[왼손으로 부구의 소매를 당기고, 오른손으로 홍애의 어깨를 친다.]”라고 하였다. ‘浮丘’는 고대 전설 속의 신선인 浮丘公을 말한다.
 50) 後漢 때 은자였던 張仲蔚은 박학다식하고 시문을 잘 지었으나 일절 문밖을 출입하지 않아 집 안에 쭉대가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자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仲蔚蓬蒿’라는 成語가 만들어졌다.

憩來便覺身安穩 쉬다보면 문득 몸이 안온해짐을 느끼나니
到處從知可樂天 도처마다 天理를 즐길 만한 곳을 알겠네.

조종진, 「次半嶺小憩」(『유고』 책2)

地步高低各息肩 처한 위치가 높은 낮은 각자 어깨를 쉬면되니
容翁半嶺拾風煙 용재 옹은 산허리에서 바람과 안개를 주웠다네.
會須假我青雲翼 모름지기 나에게 靑雲의 大鵬 날개를 빌려준다면
一日春風直上天 어느 날 봄바람 타고 곧장 하늘 위로 솟구치리라.

주자는 신선을 마주할 정도로 산 정상에 오르려 애쓰지 않아도 산 중턱에서 웃으며 안개를 굽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논지를 피력하였다. 평상시 쉼대 보다 낮은 집에서 산 처지에 이 정도라도 만족한다는 것에서 玩物喪志를 경계하는 철리적 주제를 담았다.

이행의 시도 주자와 같은 주제의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승구에서 구름과 안개를 밟고 서 있을 정도로 높은 곳까지 굳이 오를 필요는 없다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言志], 산행의 진정한 묘미는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마다 있다는 뜻을 기탁[寓意]하기 위해 『주역』의 「繫辭傳上」에서 “天理를 즐기고 天命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樂天知命 故不憂]”라고 한 것을 차용하였다. 이로 인해 이행의 시에서도 심오한 철학적 사유와 깨달음을 느끼게 된다.

조종진의 시도 승구에서 직접 이행의 시를 거론하며 이행의 뜻에 동조하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었다[言志]. 그러나 조종진의 궁극적인 지향은 산허리나 산정상도 아닌 그 너머 하늘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전구에서 『장자』의 「逍遙遊」에 등장하는 大鵬의 날개를 끌어왔고, 결구에서는 이백이 「上李邕」이라는 시에서 大鵬의 우화를 원용하였던 “大鵬一日同風起, 扶搖直上九萬里.”의 구절을 다시 변용시켜 자신의 뜻을 기탁한[寓意] 것이다. 이로 인해 조종진의 시에서는 무한한 자유와 호방한 기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주자, 제22수 「霜月 次擇之韻[서리 내리는 밤에 달을 보며 택지의 시에 차운하다.]」

蓮花峯頂雪清天	연화봉 정상에 눈 내리다 하늘은 맑아지니
虛閣霜清絕縷烟	빈 누각엔 서리 맑고 한 가닥 안개도 없네.
明發定知花簌簌	동 트면 바로 알겠지 꽃은 떨어졌겠지만
如今且看竹娟娟	오늘처럼 또 곱디고운 대나무 볼 것임.

이행, 「次霜月韻」

晚來微雨洗長天	날이 저물자 가랑비는 긴 하늘을 씻기더니
入夜高風捲暝煙	밤들어 높은 바람은 어둑한 안개를 걷어가네.
夢覺曉鍾寒徹骨	새벽 종소리에 잠깨니 한기가 뼈를 파고드는데
素娥靑女鬪嬋娟	흰 달과 파릇한 서리가 곱고 예쁜 자태 뽐내네.

조종진, 「次霜月」(『유고』 책2)

玉露初凝璧月天	흰 이슬 맺히자 둥근달 하늘에 떠오르고
更深城郭淨人煙	밤 깊어진 성곽엔 인가의 연기도 걸렸네.
定如高士含情苦	마치 향산거사는 간절한 심정 머금었는데
羞却春娃共鬪妍	미모 뽐내기 부끄러워 물러나는 봄처녀 같네.

주자는 눈 내리던 하늘이 개고 안개가 걷혀 맑게 서리 내리는 상황에서 달을 감상하는 것으로 詩想을 전개하다가, 문득 내일 아침을 기대하는 것으로 시상을 전환하였다. 떨어졌을 꽃에 대한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서리를 맞아 더욱 싱그러울 대나무가 있음으로 희망을 삼는 그의 모습에서 경물에 탐닉하지 않는, 즉 玩物喪志를 경계하는 선비의 담백한 풍모가 느껴진다.

시상의 전개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행의 시는 ‘雪’을 ‘微雨’로 바꾼 것 외에는 주자의 시와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즉 저물녘에서 저녁으로, 다시 새벽으로 이동하는 시상의 전개와 전환이 같다. 기구와 승구는 寫景이기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행은 결국에서 李商隱의 「霜月」에서 “靑女素娥俱耐冷, 月中霜裏鬪嬋娟.”이라고 한

구절을 차용하였다. ‘靑女’는 서리나 눈을 관장하는 여신을, ‘素娥’는 姮娥를 가리킨다. 이행의 시에서는 각각 서리와 달을 의미하는데, 두 시어가 지닌 색채가 대비됨으로써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차용한 이행의 절구는 단순히 새벽의 경관을 묘사한 듯하지만, 전구의 의미와 연동시켜 이해한다면 景 속에 情이 녹아든, 즉 情景이 융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흰 새벽달과 파릇한 서리의 맑음을 통해[寓意] 뼈를 파고드는 한기를 잊는 이행의 모습에서, 연약해진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고결함을 유지하려는 선비의 정신[言志]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조종진의 시는 이행의 시보다는 오히려 주자의 시를 의식하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주자의 原詩에서 전구의 ‘定’과 절구의 ‘如’를 조종진은 전구에다 ‘定如’로 합쳐 배치한 것이 그 이유이다. 조종진의 시에서는 ‘霜’을 ‘露’로 바꾸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자와 이행의 시에서 보이는 새벽으로의 시상의 전환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주자와 이행이 望月하는 공간이 山中임에 비해, 조종진의 望月은 도심 근처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조종진의 「對竹」에서 살폈듯이 조종진의 거처가 변잡한 도시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구와 절구의 처리가 확연히 달라졌다. 전구의 ‘高士’와 절구의 ‘春娃’는 白居易의 「洛中春遊 呈諸親友」⁵¹⁾를 변용시킨 것이다. 즉 ‘高士’는 香山居士인 백거이를, ‘春娃’는 기녀를 의미하는 바, 번역에서는 이를 ‘봄처녀’로 순화시켰다.

백거이는 노년에 봄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洛陽의 도심에서 봄놀이를 즐겼는데, 이 자리에 동석한 여인이 노년인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았는지 4연에서 “春娃無氣力, 春馬有精神.”이라고 읊었다. 백거이의 시가 지닌 다소 염정적이고 향락적인 내용을 조종진은 일부분 각색하여 절구에

51) 백거이의 「洛中春遊 呈諸親友」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莫歎年將暮, 須憐歲又新. 府中三遇臘, 洛下五逢春. 春樹花珠顆, 春塘水麴塵. 春娃無氣力, 春馬有精神. 並轡鞭徐動, 連盤酒慢巡. 經過舊鄰里, 追逐好交親. 笑語銷閒日, 酣歌送老身. 一生歡樂事, 亦不少於人.”

서 ‘부끄러워 물러나다[羞却]’라고 표현하였다. 조종진은 기울어 가는 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言志]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백거이에게 투영[寓意]한 것이며, 기우는 달을 부끄러워 물러나는 봄날의 미인으로 비유한 것이다. 백거이의 시를 차용하되 자신만의 시어로 치환시킨 점은 참신하다 하겠다. 또한 주자와 이행의 시에서 보이는 담백한 선비나 고결한 선비의 모습과는 다르게 曠達한 居士의 모습이 보이는 이유도 백거이의 시를 차용한 결과이다.⁵²⁾

이상 근체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행과 조종진의 화운시에 있어서 ‘寓意’와 ‘言志’가 창작 의도의 주된 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자의 原詩에 담긴 주제의식을 수용하고 변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경물에 기탁하거나 전고를 차용·변용하고 의론을 개진하며 진솔하게 정감을 발현하고 주제를 부각시켰다. 이것이 각자의 개성으로 형상화한 그들의 작품이 지닌 문학성이다.

3. 古詩의 작법에 대한 수용과 변주

앞 절에서는 근체시의 율격과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수용과 변주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고시에 집중하여 고시 특유의 작법이 삼자 간에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지를 분석한다.

주자, 제2수 대설에 말 위에서 경부의 시에 차운하다,
 신선이 높은 산 정상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통소를 부네.⁵³⁾
 나의 두세 벼를 불러내어, 여기 서남쪽 끝자락에 모였네.

52) ‘曠達’이란 용어는 風格 용어로도 사용되는 바, 24개의 풍격을 제시한 『二十四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마음이 크게 트여서 활달함을 뜻하는 ‘광달’은 풍격 상에서 호쾌·달관·자유분방 등의 함의를 지니며, 대표적인 시인으로 백거이가 꼽힌다.(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pp.592-614)

53) ‘參差’는 가지런하지 않거나 흩어진 모양을 형용하는데, 통소의 별칭으로도 사용된다. 주자대전번역연구단의 『주자대전1』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번역하였으나, 본고에서는 ‘吹’자와 연계하여 후자의 의미를 취해 수정하였다.

자리 배열하여 洛公에게 명하고, 모시고 앉아 江妃를 맞이하네.⁵⁴⁾
 천 개의 털 깃발로 그를 인도하며, 만 개의 옥구슬로 던져대네.
 흩날리는 것이 어찌나 고운지, 어두침침하여 자세히 알기 어렵네.
 못 신선들 또한 날아오니, 황홀히도 높은 하늘이 낮아짐을 깨닫네.
 아득히 구름과 안개 모이는데, 하나하나가 옥구슬 같은 자태라네.
 머리 돌려 세속 사람과 이별하고, 천년토록 공연히 그리워했네.
 내 쇠약해서 웅장한 경관을 겁내어, 감히 이러한 기이함 찾지 못했네.
 단출한 옷차림에 한 필의 말 타고, 매우 다행히도 따를 수 있었네.
 날씨 추워 나에게 술 마시게 하고, 술자리 파하자 그대 시 잇는다네.
 인생이 남과 북으로 바뀌는데, 어느 때에 이곳으로 돌아올지 알리오.

「大雪馬上次敬夫韻」

仙人喬嶽頂, 散髮吹參差. 喚我二三友, 集此西南垂.
 列筵命洛公, 侑坐迎江妃. 導之千羽旄, 投以萬璧璣.
 繽紛一何麗, 晦靄難具知. 衆眞亦來翔, 恍覺叢霄低.
 茫茫雲霧合, 一一瓊瑤姿. 回首謝世人, 千載空相思.
 吾衰怯雄觀, 未敢探此奇. 短衣一匹馬, 幸甚得所隨.
 天寒飲我酒, 酒罷廢君詩. 人生易南北, 復此知何時.

주자의 시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큰 눈이 내리는 경관을 환상적으로 묘사하였다. 신화 속 인물과 신선을 등장시킨 점, 흩날리는 눈을 옥구슬로 비유한 점, 경관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奇’자로 집약한 점 등은 농후한 仙趣로 인해 주자의 문학적 감수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의 문학성은 고시라는 형식 그 자체에 있다.

고시에 있어 시구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산문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자의 시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살필 수 있는데, 이것은

54) 주자대전번역연구단의 『주자대전 I』에서는 ‘洛公’을 ‘洛神’으로 보았으나, 曹植의 「洛神賦」가 伏羲氏의 딸 宓妃가 洛水에서 익사하여 水神이 되었다는 전설에 의거하여 지은 것임을 감안한다면 ‘洛公 = 洛神 = 宓妃 = 江妃’의 관계가 형성되어 두 구에 모두 같은 인물을 등장시킨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洛公’을 洛神의 남편, 즉 황하의 신 河伯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洛水가 南陽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가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산문의 어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之’, ‘以’, ‘所’ 등의 글자를 사용한 것과 ‘人’, ‘我’, ‘南’, ‘一’, ‘此’ 등의 글자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산문의 구조로 시구를 조직하고, 산문의 어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를 사용하며, 한 글자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즉 重字를 피하지 않는 것은 고시의 특징이다. 특히 주자는 시의 제21구와 제22구에서 ‘酒’자를 활용한 連環句를 구사하였다. 連環句란 上句(또는 上聯)의 마지막 한 글자 또는 두세 글자가 下句(또는 下聯) 맨 앞의 한 글자 또는 두세 글자와 중복되어 일종의 연쇄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복되어 끝이 없는 情誼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여 고시에서 즐겨 사용되던 작법이다.⁵⁵⁾ 뒤에서 예거하겠지만 주자는 다른 고시에서도 連環句를 구사하였으니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시에서 주자는 서로 술을 주고받는 술자리와 그 속에서 깊어지는 정감, 그리고 이어지는 시의 수창을 連環句를 통해 연결시킨 것이다.

이행, 봄눈. ‘대설’ 시에 용운하다.
 천공은 장난질을 좋아하는지, 사람과 많이도 어긋나는구나.
 봄 온 뒤에 등륙을 내려 보내, 내 늘어진 귀밑머리로 들어오네.
 노인이 음률에 얽매인 줄 오래전에 알고, 못 옥비로 시험하네.
 탐내지 않음이 보배인 것을, 진주와 구슬이 있으면 어찌하리.
 마음먹은 곳은 따로 있으니, 확실히 아이들이 알게 아니라네.
 무성한 산 기운은 저물어 가고, 자옥한 먹구름이 낮게 드리웠네.
 애써 일어나 찬 매화 곁에 가니, 상쾌하기가 속세 벗어난 자태구나.
 그것을 꺾어 누구에게 주려나, 내 그리움은 아득하고 아득한데.
 서로 봐도 둘 다 싫증나지 않아, 말없이 괜히 절로 기이하다 하네.

55) 왕력 지음, 송용준 옮김, 『중국시율학2』, 소명출판, 2005, pp.485-490 참조. 왕력에 의하면 連環句는 구성지고 연연하며 반복되어 끝이 없는 情誼를 표시하는 데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시인들이 즐겨 사용하여 율시에까지 스며들었으며, 때로는 한 수의 시 안에 여러 군데서 連環句를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한 체를 이루기도 하였다고 한다.

짧은 지팡이는 본래 나의 것이고, 국생 또한 내가 따르는 것이라네.
지팡이 내던지고 한바탕 취해보고, 지팡이 두드리며 새 시를 읊네.
하늘의 운행은 번갈아 바뀌어도, 이 흥취는 다할 때가 없으리.

「春雪 用大雪韻」

天公好戲劇, 與人多參差. 春後遺隙六, 入我雙鬢垂.
久知老縛律, 試以群玉妃. 不貪是爲寶, 何有珠與璣.
用意自有在, 定非兒輩知. 藹藹山氣夕, 漠漠雲陰低.
強起傍寒梅, 灑洒塵外姿. 折之欲誰贈, 渺渺余所思.
相看兩不厭, 脈脈空自奇. 短筇固吾有, 麴生亦我隨.
投杖作一醉, 敲杖吟新詩. 天運有相代, 此趣無窮時.

이행의 시도 주자의 경우처럼 ‘之’, ‘以’, ‘所’ 글자를 사용하였고, ‘天’, ‘與’, ‘我’, ‘知’, ‘自’, ‘不’, ‘杖’ 등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였는데, 특히 ‘有’ 글자를 4번 반복 사용하여 고시 특유의 어법을 최대한 운용하였다. 이것은 주자의 시를 수용한 양상이다. 그러나 주자가 구사한 연환구를 활용하지 않았으니, 주자의 시를 변주한 양상이다.

또한 이행의 시는 주자의 시에서 드러나는 仙趣를 의도적으로 억제한 경향이 있다. 눈을 내리게 하는 神인 ‘騰六’과 눈을 선녀에 비유한 ‘玉妃’가 등장하지만, 이행의 시선이 봄눈에 있지 않고 눈을 맞은 찬 매화의 상쾌함에 가있기 때문이다. 노쇠한 몸으로 외로이 지내는 이행은 옛 적에 박은과 남곤하고 남산에서 唱酬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한편, 술과 시로 유유자적하는 흥취를 표출하였다. 외로움과 그리움을 초월하여 무한한 흥취를 즐기는 그의 모습 속에서 승고미가 느껴지는 이유는 눈을 맞고도 상쾌함을 발산하는 매화에 자신의 ‘用意’를 투영했기 때문이다. 이행의 시가 지닌 미적 특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종진, 「봄눈」

인간세상 온통 먼지이더니, 이제야 들쭉날쭉함이 없네.
온갖 나무는 고운 자태 뽐내고, 붉은 꽃은 어지러이 늘어졌네.

봄의 신이 하나의 걱정을 하여, 만 명의 옥비가 이르게 도모했네.
 푸른 바다의 조개를 거두어서, 하늘 가득히 진주 구슬을 뿌리네.
 형체 있어 하늘과 함께 쌓이는데, 소리 없어 밤인지도 모르겠네.
 밝은 달은 도리어 빛이 적고, 흰 구슬이 높았다 낮아졌다 하네.
 하늘을 받치는 천만 봉우리는, 하나하나 옥빛 자태가 되었네.
 하계는 온통 회고 깨끗하니, 신선들도 오려고 생각하네.
 천하는 그림으로 그럴만 하니, 화공이라면 기이함에 부응하려 생각하리.
 봄바람이 차례대로 이룬다면, 푸른 짙은 원래 서로 따르기 마련이지.
 한번 지경이 셋겨 이미 아름다운데, 새로운 시 이끌어내는 사람을 잘 봐주네.
 땅에 펼쳐진 만물이 생동하니, 비온 때처럼 촉촉이 운이 나네.

「春雪」(『유고』 책3)

人間渾是塵, 到今無參差. 萬樹爭妍態, 紅紫紛垂垂.
 東皇爲一憂, 謀及萬玉妃. 收拾滄海蚌, 滿空發珠璣.
 有形天共積, 無聲夜不知. 明月還少光, 踏壁高且低.
 撐天千萬峰, 箇箇成玉姿. 下界渾皎潔, 羣仙且來思.
 天下堪繪素, 化工思應奇. 春風取次至, 菁葱元相隨.
 一洗境已佳, 饒人惹新詩. 萬彙羅地生, 滋潤似雨時.

조종진의 시는 제6구에서 이행의 시어인 ‘萬玉妃’를 재사용하고 있는 점과 연환구를 활용하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행의 시를 차운한 것이지만, 오히려 시적 분위기는 주자의 것을 의식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봄을 주관하는 神인 ‘東皇’⁵⁶⁾과 신선을 등장시키고 눈을 옥 구슬에 비유하면서 전체적으로 仙境에 대한 묘사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4연에서 “푸른 바다의 조개를 거두어서 하늘 가득히 진주 구슬을 뿌리네.”라고 하여 봄눈이 내리는 仙境을 묘사한 부분은 자신만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참신하게 변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행의 시는 시간적 배경이 저물녘인 것에 비해, 시간적 배경을 달이 뜬 밤으로 설정한 것도 이행의 시를 변주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56) 봄은 東方과 靑色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東帝, 東皇, 靑皇, 靑帝 등으로 불린다.

한편 조종진은 주자와 이행의 시에서 보이는 ‘之’, ‘以’, ‘所’ 등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渾’, ‘萬’, ‘一’, ‘玉’, ‘天’, ‘且’, ‘思’ 등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여 주자와 이행처럼 重字를 피하지도 않았다. 이 또한 주자와 이행의 시를 수용하고 변주한 양상이다. 조종진이 고시에서 重字를 구사한 경우는 하나의 글자만 놓고 봤을 때에 오히려 이행의 경우보다 그 사용수가 많기도 한데, 주자의 시 제42수인 「自上封登祝融峯絕頂次敬夫韻[상봉사에서 축융봉 정상에 올라 경부 시에 차운하다]」를 화운한 이행의 시 「一室用登祝融峯絕頂韻」에서는 ‘有’자를 4번 반복 사용하였는데, 조종진의 시 「一室」에서는 ‘有’자를 5번 반복 사용할 정도이다.

앞 절에서 근체시를 중심으로 분석했듯이 이행과 조종진은 주자의 시가 지닌 운율과 격식을 수용하고 변주하면서 단순한 형식의 답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으로 형상화하였다. 화운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형식의 답습과 시재의 과시 이외에도 주제의식의 결여를 지적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화운시의 문학성에 대한 평가는 작가가 구현하려는 주제의식이 주요할 것이다. 이것은 고시에서도 유효하다.

주자는 仙境에 도취되어 다시금 그 仙趣를 누리고자 하는 희망을 표출하였다면, 이행은 뜻밖의 자연 변화와 인생 역경 속에서도 매화를 매개로 하여 고결한 자세를 견지하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이행이 자신의 寓意와 言志에 의해 변주한 결과로 나타나는 주제의식이다. 조종진의 주제의식은 양자와는 다른 양상이 보이는데, 그것은 마지막 연에서 붉은 눈을 비와 같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雨露之澤’, 즉 백성에 대한 治化의 은택으로 귀결시킨 점이다. 조종진이 자신만의 寓意와 言志로 변주한 결과이다.

주자, 제49수 「경부가 해준 말에 두 시로 받들어 수창하고 아울러 이별하다」
내 이천 리 길을 가서, 남산 기슭으로 그대를 방문했네.
하늘 바람 차가움 걱정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상수 깊음 꺼렸으리.

8월 아침에 집을 떠났는데, 9월 초에 멩에를 풀었다네.
 문노니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엄동설한에 올해가 저물어간다 하네.
 수고롭게도 그대 옥 발걸음 떼어, 나를 전송하려 남산에 올랐지.
 남산은 높아 다함이 없는데, 눈 깊어 길은 아득하다네.
 진창길을 또 얼마나 가야하나, 오늘 저녁은 저주에서 묵네.
 내일이면 헤어져 등지고 가야하니, 슬프게도 머물 수 없구나.
 그대가 내게 준 시를 외어보며, 세 번 탄식하니 더욱 정이 넘치네.
 두터운 뜻 감히 잊지 못하리니, 그대 위해 상성⁵⁷⁾의 노래 부르네.

「二詩奉酬敬夫贈言 并以爲別」 其一

我行二千里, 訪子南山陰. 不憂天風寒, 況憚湘水深.
 辭家仲秋旦, 稅駕九月初. 問此爲何時, 嚴冬歲云徂.
 勞君步玉趾, 送我登南山. 南山高不極, 雪深路漫漫.
 泥行復幾程, 今夕宿櫛洲. 明當分背去, 惆悵不得留.
 誦君贈我詩, 三歎增綢繆. 厚意不敢忘, 爲君商聲謳.

주자는 ‘我’, ‘君’, ‘南山’ 글자를 세 번씩 반복하여 사용하였고, 특히 ‘南山’을 제5연의 對句 맨 끝과 제6연의 出句 맨 앞에 중복 사용하는 연환구를 구사하였다. 이어지는 산행과 그 속에서 끝없이 느낀 정감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주자의 「大雪」시를 화운한 이행과 조종진의 시에서는 연환구가 활용되지 않았는데, 위 시에 대해서는 이행과 조종진 모두 연환구를 활용하였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행, 「김백기가 『남악창수집』을 준 것에 사례하다. 「경부의 시에 받들어 수창하다」에 용운하다.」

57) ‘商聲’은 마음이 맞는 벗을 위해 부르는 詩歌를 뜻한다. 『禮記』의 「樂記」에 “사랑하는 사람은 상성을 노래함이 옳다.[愛者宜歌商]”라고 하였다. 또한 韓愈의 「騫驥贈歐陽詹」에 “마음이 같은 그대에게 시를 부치노니, 나를 위해 상성의 노래 읊으라.[寄詩同心子, 爲我商聲謳.]” 하였다. 따라서 주자의 시 마지막 구는 한유의 시구를 차용한 것이다.

봄날은 이미 저물어 버렸고, 버들이 맑은 그늘 희롱하네.
 평생의 지기인 김백기가, 깊은 산길로 나를 방문했다네.
 나에게 남악록을 주었으니, 본 것은 내가 비로소 처음이네.
 주자와 장남헌 두 선생께서, 가신 지 세월 이미 오래되었구나.
 정신으로 사귀는 원근이 없어, 만고에 청산으로 하나가 되었네.
 남악 형산과 우리나라는, 거리만 부질없이 멀고도 머네.
 승경을 각자 서로 마주하면 되지, 하필 형주이어야만 하겠는가.
 형산은 그대들 다니신 곳이고, 남산은 내가 머무르는 곳이네.
 세 번 탄식하고 소리 높여 화답했다니, 내 마음 어찌나 정이 넘치던지.
 정이 넘치는 마음이 다하지 않아, 바람 맞으며 노래지어 부르네.

「謝金伯起以南岳唱酬集見贈 用奉酬敬夫韻」其一
 春日既已晚, 楊柳弄清陰. 平生金伯起, 訪我山路深.
 贈我南岳錄, 着眼我方初. 朱張兩夫子, 歲月久已徂.
 神交無遠近, 萬古一青山. 南岳與東海, 道里空漫漫.
 勝境各相當, 何必惟衡州. 衡岳子所歷, 南山我所留.
 三和嘆高唱, 我意何綱繆. 綱繆意不盡, 臨風爲歌謳.

주자가 ‘我’, ‘君’, ‘南山’을 3번씩 반복 사용한 것과 연환구를 구사한 것을 이행이 어떻게 수용하고 변주했는지 그 양상을 제대로 살필 수 있다. 이행은 ‘我’를 4번 반복 사용하였고, ‘南岳(衡岳)’과 ‘南山’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중국의 형산을 후자는 서울의 남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두 산을 ‘青山’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제9연의 對句 맨 끝과 제10연의 出句 맨 앞에 ‘綱繆’를 중복 사용하여 주자가 구사한 연환구를 활용하였다.

장식이 준 시에 주자가 “誦君贈我詩, 三歎增綱繆.[그대가 내게 준 시를 외어보며, 세 번 탄식하니 더욱 정이 넘치네.]”라고 화답하였으니, 이행도 지기인 김양진 덕분에 『남악창수집』을 접하고 주자의 시에 화운하면서 끝없이 일어나는 정감을 “三和嘆高唱, 我意何綱繆.[세 번 탄식하고 소리 높여 화답했다니, 내 마음 어찌나 정이 넘치던지.]”라고 토로하였

다. 이 때문에 ‘엷히고설키다’의 뜻을 지닌 ‘縹緲’를 중복 사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느끼게 되는 무한한 공감대를 형상화한 것이다.

조종진, 「김백기가 『남악창수집』을 준 것에 사레하다.」

형산이 남쪽 지역에서 솟았으니, 주자께서 맑은 그늘에서 노셨네.

시 그만둔 건 일찍이 까닭이 있었으니, 어찌 공께서 깊이 빠진 걸 몰랐으리.⁵⁸⁾

형산의 남쪽을 오름에 미쳐, 처음인 듯 빼어난 흥취가 일었지.

칠일 간 남현과 함께하며, 도의로 사귀고 정신을 공유하며 나아갔네.

회포 풀기는 시만 한 것이 없으니, 시구로 유명한 산을 진압했다네.

산 높아 푸른 하늘을 떠받치니, 우리 유학은 얼마나 끝이 없는가.

시 짓고 술 마시던 청학동 모임에서는, 천 년 전 형주를 추억했다지.⁵⁹⁾

좋은 벗이 시를 던져주었는데, 주옥같은 화운시를 다시 남겼다네.⁶⁰⁾

58) 張栻의 「南嶽唱酬序」에 “念吾三人是數日間，亦荒於詩矣。大抵事無大小美惡，流而不返，皆足以喪志。於是始定要束，異日當止。蓋是後事雖有可歌者，亦不復見于詩矣。嗟乎，覽是編者，其亦以吾三人者自儆乎哉.[생각건대 우리 세 사람은 이 며칠 사이에 또한 시에 탐닉하였다. 대저 사물은 대소와 미악을 막론하고 쓸려서 돌아오지 못하면 모두 뜻을 잃을 수가 있다. 이에 비로소 다른 날에는 마땅히 그치자고 약속하기를 정하였다. 대개 이 후로 사물에 비록 노래할만한 것이 있더라도, 역시 다시는 시에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아! 이 책을 보는 자는 또한 우리 세 사람을 스스로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규장각 소장본 『南嶽唱酬集』: 이의강, 앞의 논문, p.113에서 재인용함)

59) 이행의 화운시 제38수인 「追憶壬戌之秋七月既望，與南止亭朴翠軒，蠶頭峯下泛舟之遊。用讀張湖南七月十五夜詩韻.[임술년(1502) 가을 7월 16일에 지정 남곤과 읍취헌 박은과 함께 잠두봉 아래에서 뱃놀이 한 것을 추억하며, ‘장호남의 7월 15일 밤이라는 시를 읽고’에 용운하다.]에서 “赤壁千載後，勝絕蠶頭峯.[적벽대 전 천년 후였는데, 경치 빼어난 잠두봉이라.]”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이행의 시에서 앞 구절은 적벽대전이 벌어진 208년에서 약 천년 지난 1082년에 소식 이 적벽[물론 적벽대전이 벌어진 그 적벽은 아니다.]에서 뱃놀이하고 그 흥취를 적은 「赤壁賦」를 언급한 것이다. 뒤 구절은 소식이 적벽에서 뱃놀이한 것처럼 이행을 포함한 세 사람이 서울 잠두봉 아래 한강에서 뱃놀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종진이 시에서 ‘衡州’라고 한 것은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荊州’를 誤記한 것이거나 조종진의 오류로 판단된다.

60) 원문의 ‘瓊瑠’는 보배로운 구슬로, 상대방의 시문을 뜻한다. 『詩經衛風』의 「木瓜」에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거늘 경거로써 보답하네.[投我以木瓜，報之以瓊瑠.]”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는데, 모과는 자신의 시문을 뜻한다. 따라서 “좋은 벗이 … 남겼다네.”라는 두 시구는 이행이 지기인 金楊震으로부터 『南嶽唱酬集』을 건네받고 『和朱文公南岳唱酬集』을 지은 것을 가리킨다.

한번 노래하니 위대한 음률이 있고, 얽히고설킨 마음을 가져다 드렸네.
내가 다시 약간 수로 화운하여, 맑은 노래로 신령께 사례한다네.

「謝伯起以南岳唱酬集見贈」其一(『유고』 책3)
南嶽出斗南, 紫陽弄清陰. 廢詩曾有以, 胡公非知深.
及登南嶽南, 逸興發如初. 七日携南軒, 道交共神俎.
暢懷莫如詩, 詩句鎮名山. 山高撐青天, 吾道嗟漫漫.
青鶴文酒會, 千載憶衡州. 良朋投遺章, 瓊瑤尚復留.
一唱有希音, 持贈意綢繆. 重和若干篇, 巨靈謝清謳.

조종진은 중국의 형산을 지칭하는 ‘南嶽’을 2번 반복 사용하였고, 추가로 ‘南’과 ‘詩’자를 3번씩 반복 사용하였다. 조종진이 주자와 이행의 시를 수용하고 변주한 양상에 있어 가장 특색이 있는 부분은 연환구의 활용이다. 주자와 이행은 上聯의 對句과 下聯의 出句에서 연환구를 구사하였는데, 그의 시는 이와는 색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종진은 제5연에서 出句의 맨 끝과 對句의 맨 앞에 ‘詩’자를 중복 사용하는 연환구를 활용하였는데, 또다시 제5연의 對句 맨 끝과 제6연의 出句 맨 앞에 ‘山’자를 중복 사용하였다. 연환구를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연이어서 활용한 것이다. 조종진의 뛰어난 詩才와 문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러한 양상에 의미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결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작법 상 의도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면 그 답은 간명하게 도출된다. 주자가 형산을 유람하며 지은 시에 남산에 거주했던 이행이 시공간을 넘어 화운하였고, 다시 시간을 넘어 남산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조종진이 이행의 시에 화운하였다.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자와 이행 및 조종진이 공유하였던 것이 바로 山과 詩이다. 삼자의 山行과 作詩를 조종진이 連環句를 활용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이상 고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행과 조종진이 주자의 고시에서 구사된 산문 어법과 重字 및 連環句를 수용하여 각자의 개성과 주제의식으로 변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본고는 주자의 「남악창수시」 50수에 대한 이행과 조종진의 화운시를 중심으로 문학적 수용과 변주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체시의 압운 방면에 있어 주자는 수구에 통운으로 압운한 경우가 있다. 이행과 조종진은 이를 수용하여 수구의 운자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原詩에 사용된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주로 시상을 끝맺는 부분인 마지막 구의 운자를 동일 운목의 다른 글자로 전환하여 변주하였다. 이것은 운자의 변주를 통해 주제의식의 차별화를 구현한 것이다.

주제의식의 차별화는 주자의 原韻을 그대로 사용한 시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행과 조종진은 각자의 ‘寓意’와 ‘言志’로 주자의 原詩에 담긴 주제의식을 수용하고 변주하면서 각자의 뜻을 경물에 기탁하거나 전고를 차용·변용하고 의론을 개진하며 진솔하게 정감을 발현하여 주제를 부각시켰다.

고시의 경우에 있어서 이행과 조종진은 주자의 原詩에서 구사된 산문 어법과 重字 및 連環句를 수용하고 변주하면서 각자의 개성과 주제의식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삼자가 공유하였던 山行과 作詩를 ‘山’자와 ‘詩’자의 連環句로 형상화한 조종진의 작품은 뛰어난 詩才와 함께 문학적 가치를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이행과 조종진은 주자의 原詩가 지닌 운율과 격식 및 내용을 수용하고 변주하면서 단순한 형식의 답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학성으로 내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로 인해 조종진과 그의 문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본고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이광정의 화운시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 權好文, 『松巖集』(한국문집총간 41집)
宋栲壽, 『松潭集』(한국문집총간 속4집)
李光庭, 『訥隱集』(한국문집총간 187집)
李安訥, 『東岳集』(한국문집총간 78집)
李 荇, 『容齋集』(한국문집총간 20집)
李徽逸, 『存齋集』(한국문집총간 124집)
李喜朝, 『芝村集』(한국문집총간 170집)
趙琮鎮, 『東海公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周世鵬, 『武陵雜稿』(한국문집총간 26~27집)
周世鵬, 『竹溪志』(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蔡之洪, 『鳳巖集』(한국문집총간 205집)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1969.
주자대전 번역연구단, 『주자대전1·2』, 한국학술정보(주), 201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徐師曾 著, 羅根澤 校點, 『文體明辨序說』,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嚴 羽 著, 郭紹虞 校釋, 『滄浪詩話校釋』,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5.
王 力 지음, 송용준 옮김, 『중국시율학2』, 소명출판, 2005.
- 김경동, 「白居易와 高麗文人の 唱和詩 研究 - 唱和의 諸樣相과 意味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29, 한국중문학회, 2004.
김상홍, 『한시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초판 3쇄).
김홍영, 「주자의 남악유산시와 퇴계학파의 영향」, 『퇴계학논집』2, 영남퇴계학
연구원, 2008.
심경호, 「퇴계의 산수유기」, 『퇴계학연구』10,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6.
_____,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31, 고려
대민족문화연구원, 1998.

- 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 이국진, 「두보시 「北征」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일고찰」, 『동양한문학연구』33, 동양한문학회, 2011.
- _____, 「조선시대 「南山詩」 차운시의 양상과 문학적 특징」, 『어문논집』70, 민족어문학회, 2014.
- 이의강, 「이행의 화운시집 『和朱文公南嶽唱酬集』 연구 - 『남악창수집』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겸하여」,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이종묵, 『해동강서시과연구』, 태학사, 1995.
- 이 훈, 「東海 趙琮鎭의 시문학 연구 - 기행시문집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18, 한국한문학회, 1995.

【부록】

주자 「南嶽唱酬詩」, 이행 「和朱文公南岳唱酬集」,
조종진 「次容齋和朱子南岳唱酬韻」 詩題 및 押韻 대조표

구분 題次	주자의 「南岳唱酬詩」		이행의 화운시		조종진의 화운시		詩體
	詩題	압운자[운목] <압운방법>/合 律 여부	詩題	압운자 [운목]	詩題	압운자 [운목]	
1	七日發嶽麓道中 尋梅不獲 至十 日遇雪作此(自此 後係南嶽唱酬)	林, 深, 襟[侵] <一韻到底>	對竹 用遇雪韻	좌동	對竹	좌동	七絶
2	大雪馬上次敬夫 韻	差, 垂[支] 妃, 璣[微] 知[支] 低[齊] 姿, 思, 奇, 隨, 詩, 時[支] <通韻>	春雪 用大雪韻	좌동	春雪	좌동	五古 (24句)
3	風雪未已 決策登 山 用敬夫春風樓 韻	觀, 漢, 畔, 斷, 嘆, 泮, 且, 貫[翰] <一韻到底>	青鶴洞 用春風樓 韻	좌동	누락	.	五古 (16句)
4	十三日晨起雪晴 前言果驗 再用敬 夫定王臺韻賦詩	臺, 回, 梅, 杯[灰] <一韻到底>	花徑 用定王臺韻	좌동	花徑	좌동	五律
5	敬夫用熹定王臺 韻賦詩 因復次 韻	來, 臺, 開, 哀[灰] <一韻到底>	有懷止亭 用定王 臺韻	좌동	有懷止亭	좌동	五律
6	馬上口占 次敬夫 韻	昏, 村, 尊(=樽)[元] <一韻到底>	次口占韻	昏, 村, 樽	次口占	昏, 村, 尊(=樽)	七絶
7	馬上舉韓退之話 口占	茫, 蒼, 香[陽] <一韻到底>	次舉韓退之話韻	좌동	次話韻	좌동	七絶
8	雪消溪漲 山色尤 可喜 口占	青, 汀, 屏[青] <一韻到底>	次雪消山色可喜 韻	좌동	次雪消山色 可喜	좌동	七絶
9	馬跡橋	橋, 霄, 招[蕭] <一韻到底>	石橋 用馬迹橋韻	좌동	石橋	좌동	七絶
10	登山有作 次敬夫 韻	尋, 深, 心[侵] <一韻到底>	次登山韻	좌동	次登山	좌동	七絶
11	方廣道中半嶺小 憩 次敬夫韻	肩, 煙, 天[先] <一韻到底>	次半嶺小憩韻	좌동	次半嶺小憩	좌동	七絶
12	道中景物甚勝 吟 賞不暇 敬夫有詩 因次其韻	新, 人[眞] <一韻到底>	次景物甚勝吟賞 不暇韻	좌동	次景物甚勝	좌동	七絶

13	崖邊積雪取食甚清 次敬夫韻	光, 嘗, 腸[陽] <一韻到底>	石井 用崖邊積雪韻	좌동	石井	좌동	七絶
14	後洞山口晚賦	深, 陰, 吟, 心[侵] <一韻到底>	次洞口晚賦韻	좌동	次洞口	좌동	五律
15	後洞雪壓竹枝橫道	垂, 詩, 時[支] <一韻到底>	雨竹 用雪壓竹枝韻	좌동	雨竹	좌동	七絶
16	方廣奉懷定叟	人, 身[眞] <一韻到底>	有懷權叔達 用奉懷定叟韻	좌동	有懷	좌동	七絶
17	方廣聖燈 次敬夫韻	尋, 心[侵] <一韻到底>	書架 次聖燈韻	좌동	書架	좌동	七絶
18	羅漢果 次敬夫韻	方, 湯[陽] <一韻到底>	辛甘菜 用羅漢果韻	좌동	辛甘菜	좌동	七絶
19	壁間古畫精絶 未聞有賞音者	陰, 尋, 心[侵] <一韻到底>	次古畫韻	좌동	次古畫	좌동	七絶
20	方廣版屋	差, 詩[支] <一韻到底>	石室 用板屋韻	좌동	石室	좌동	五絶
21	泉聲 次林擇之韻	吟, 音, 尋[侵] <一韻到底>	次泉聲韻	좌동	次泉聲	좌동	七絶
22	霜月 次擇之韻	天, 煙, 娟[先] <一韻到底>	次霜月韻	좌동	次霜月	天, 煙, 妍[先]	七絶
23	枯木 次擇之韻	牙, 花, 誇[麻] <一韻到底>	次枯木韻	좌동	次枯木	좌동	七絶
24	夜宿方廣 聞長老守榮化去 敬夫感而賦詩 因次其韻	眞, 新, 身[眞] <一韻到底>	追悼鄭淳夫 用聞長老化去韻	좌동	追悼	좌동	七絶
25	蓮花峯 次敬夫韻	蓮, 妍, 篇[先] <一韻到底>	石井 用蓮華峯韻	좌동	石井	좌동	七絶
26	奉題張敬夫春風樓(乾道丁亥冬至)	觀, 漢, 畔, 斷, 嘆, 泮, 且, 貫[翰] <一韻到底>	書屋 用春風樓韻	좌동	書屋	좌동	五古 (16句)
27	方廣睡覺 次敬夫韻	情, 聲, 清[庚] <一韻到底>	次睡覺韻	좌동	次睡覺	좌동	七絶
28	感尙子平事	行, 平, 生[庚] <一韻到底>	次感尙子平事韻	좌동	次感尙子平事	좌동	七絶
29	殘雪未消 次擇之韻	鴉, 霞, 花[麻] <一韻到底>	次殘雪未消韻	좌동	次殘雪未消	좌동	七絶
30	自方廣過高臺 次敬夫韻	城, 明, 盟, 生[庚] <一韻到底>	邀月臺 用過高臺韻	좌동	邀月臺	좌동	五律
31	石廩峯 次敬夫韻	天, 傳, 年[先] <一韻到底>	終南 用石廩峯韻	좌동	終南	좌동	七絶
32	行林間幾三十里 寒甚 道傍有殘火	堆, 回, 杯[灰]	次溫酒學白韻	좌동	次溫酒	좌동	七絶

	溫酒舉白 方覺 有煖意 次敬夫韻	<一韻到底>					
33	林間殘雪時落 踴 然有聲	瑤, 遙, 霄[蕭] <一韻到底>	次林間殘雪韻	좌동	次林間殘雪	좌동	七絶
34	至上封 用擇之韻	城, 明, 盟, 生[庚] <一韻到底>	南岡 用至上封韻	좌동	南岡	좌동	五律
35	福巖寺回望嶽市	煙, 天[先] <一韻到底>	峯火 用望岳市韻	煙, 牟[先]	峯火	煙, 牟[先]	七絶
36	福巖讀張湖南舊 詩	姿, 詩[支] <一韻到底>	讀翠軒詩 用張湖 南舊詩韻	좌동	讀挹翠軒詩	좌동	七絶
37	登祝融峯 用擇之 韻	端, 寬, 寒[寒] 還[刪] <通韻>/合律	登第一峯 用祝融 峯韻	좌동	登第一峯	좌동	五律
38	穹林閣讀張湖南 七月十五夜詩 詠 歎久之 因其韻	峰, 重[冬] 宮[東] 鏞, 鍾[冬] 風[東] <通韻>	追憶壬戌之秋七 月既望與南止亭 朴翠軒蠶頭峯下 泛舟之遊 用讀張 湖南七月十五夜 詩韻	좌동	下泛舟遊	좌동	五古 (12句)
39	晚霞	峰[冬] 紅, 風[東] <通韻>/合律	次晚霞韻	좌동	次晚霞	좌동	七絶
40	過高臺携信老詩 集 夜讀 上封方 丈 次敬夫韻	言[元] 然, 妍[先] <通韻>/合律	讀唐天使臯詩板 用讀信老詩韻	좌동	讀唐天使臯 詩板	좌동	七絶
41	贈上封諸老	清, 聲, 情 生[庚] <一韻到底>	有懷屏巖主人 用 贈上封諸老韻	좌동	有懷屏巖	좌동	五律
42	自上封登祝融峯 絕頂 次敬夫韻	高, 逃, 遭, 濤, 龜, 毫, 刀, 鬻, 勞, 毛, 滔, 搔[豪] <一韻到底>/ 不合律	一室 用登祝融峯 絕頂韻	좌동	一室	좌동	五古 (24句)
43	十五日再登祝融 用臺字韻	臺, 回, 梅, 杯[灰] <一韻到底>	幽愁 用再登祝融 峯韻	좌동	幽愁	좌동	五律
44	胡丈廣仲與范伯 崇自嶽市來 同登 絕頂 舉酒極談 得聞比日講論之 樂	來, 臺, 開, 哀[灰] <一韻到底>	細故 用登絕頂舉 酒極談韻	좌동	細故	좌동	五律
45	醉下祝融峯作	風[東] 胸, 峯[冬] <通韻>/合律	上山 用醉下祝融 峯韻	좌동	上山	좌동	七絶

46	十六日下山 各賦一篇 仍迭和韻	明, 情, 聲, 迎[庚] <一韻到底>	次下山韻	좌동	下山	좌동	五律
47	和敬夫韻	新, 眞[眞] <一韻到底>	次和敬夫韻	좌동	次和敬夫韻	좌동	七絶
48	和擇之韻	來, 堆, 雷, 回[灰] <一韻到底>	次和擇之韻	來, 堆, 雷, 回[灰]	次和擇之	來, 堆, 雷, 回[灰]	五律
49	二詩奉酬敬夫贈言 并以爲別(2个)	陰, 深[侵] 初[魚] 徂[虞] 山[刪] 漫[翰] 洲, 留, 繆, 謳[尤]<換韻>	謝金伯起以南岳唱酬集見贈 用奉酬敬夫韻(2个)	陰, 深 初, 徂 山, 漫 州[尤], 留, 繆, 謳	謝伯起以南岳唱酬集見贈 用奉酬敬夫韻(2个)	陰, 深 初, 徂 山, 漫 州, 留, 繆, 謳	五古 (20句)
50		坤, 論, 存, 根, 源, 煩, 昏, 吞, 渾, 敦[元] <一韻到底>/ 不合律		좌동		坤, 論[眞], 存, 根, 源, 煩, 昏, 吞, 渾, 敦 <通韻>	五古 (20句)

Abstract

*Acceptance and variation of Zhuzi's Namakchangsusi(南嶽唱酬詩)
by the literati of Joseon Dynasty - Focusing on bouts-rimes(和韻詩) of
Lee Haeng and Jo Jong-jin / Lee Hoon**

This study analyzes the aspects of literary acceptance and variation focusing on bouts-rimes(和韻詩) which were composed by Lee Haeng(李荇) and Jo Jong-jin(趙琮鎭) based on 50 poems of Zhuzi(朱子)'s 「Namakchangsusi(南嶽唱酬詩)」。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way of rime riche of classical chinese verse, Zhuzi made rhymes using 'Tong-Un(通韻)' in the first phrase. Lee Haeng and Jo Jong-jin accepted that method and used it as a rhyming word(韻字) in the first phrase of their works. In some cases, however, the rhyming word used in the original poems of Zhuzi was not applied. Lee Haeng and Jo Jong-jin mainly changed the rhyming word of the last phrase into different one with same rhyme group(韻目). This is the embodiment of differentiation of subject consciousness through the variation of rhyming word.

The differentiation of subject consciousness can also be seen in the poems which were written in the original rhyming word(原韻). Lee Haeng and Jo Jong-jin accepted the subject consciousness contained in Zhuzi's original poems, but made some variation with their own allegory(寓意) and expression of intention(言志). At the same time, Lee Haeng and Jo Jong-jin compared their minds to the scenery of the season(景物), borrowed from authentic precedents(典故) and transfigured intensively them, and stated disputation(議論) by expressing their emotion sincerely in order to highlight

* Lecturer of Kangwon Univ. / lh8329@hanmail.net

the subject of their poems.

In the case of ancient poems, they embraced and varied the prose grammar, reduplication(重字) and circle phrase(連環句) which were used in the poems of Zhuzi, and then embodied their own individuality and subject consciousness.

In particular, Jo Jong-jin's work has literary value and shows his excellent poetic talent; he tried to make circle phrase with two letters '山' and '詩' which were from important concepts that three of them shared beyond time and space: mountain climbing(山行) and versification(作詩).

In conclusion, Lee Haeng and Jo Jong-jin not only accepted and varied the rhythm, formality and content of the poems by Zhuzi, but also internalized those things into their literary value deviating from simple imitation.

【Key words】 Namakchangsusi(南嶽唱酬詩), bouts-rimes(和韻詩), allegory(寓意), expression of intention(言志), acceptance, variation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9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